
2020-1학기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 작품집



공감의 내일이 열립니다
가천대학교 의사소통센터

■ 심사평 이 상 숙 교수

■ 2020-1학기 수상 작품 소개

- 대상 / 무용한 것들의 미학 한국어문학과 신현기 / 01
- 금상 / 장마의 그림자 유럽어문학과 이주희 / 06
- 금상 /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 낸 색다른 삶의 방식 경제학과 최지은 / 15
- 은상 / 가장 아름다운 대화의 기술 방사선학과 김령은 / 19
- 은상 / 편리한 무인주문기의 이면 ; 어떤 이들은 주문조차 할 수 없다 법학과 김수진 / 22
- 은상 / 범죄자 조주빈에게 서사를 부여해야 하는가? 유럽어문학과 최윤서 / 27
- 은상 / 언론의 악순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해결해야 할 주체는 언론사뿐인가? 법학과 최하영 / 30
- 은상 / 언어 감수성과 공감능력에 대한 고찰 운동재활복지학과 허가을 / 34
- 동상 / 위안부, 해결되어야 할 문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남주 / 39
- 동상 / 혐오를 혐오하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복지학과 김민진 / 44
- 동상 / 동물원의 폐지 아닌 개혁, 새로운 시작점..... 경영학부(글로벌경영학) 김시현 / 48
- 동상 / SNS와 허영심 동양어문학과 김하은 / 52
- 동상 / 한국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글로벌경제학과 박수빈 / 56
- 동상 / 매미 의용생체공학과 서예원 / 59
- 동상 / 무급무휴, 유급유휴 치위생학과 양세진 / 62
- 동상 / 달팽이를 키우는 나, 나를 키우는 달팽이 의료경영학과 옥나경 / 65
- 동상 / 패스트푸드 말고, '패스트 패션'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어문학과 이유빈 / 68
- 동상 / 밀어내기 전에 가져봐야 할 의문,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는가?"..... 자유전공학부 이지원 / 72
- 동상 / 목표가 된 영어는 과연 옳은 것일까?..... 경영학부(경영학과) 이하은 / 76
- 동상 / 노키즈존(No-Kids Zone): 부모로서의 책임을 상기시키다 법학과 정민경 / 80
- 동상 / 당신은 오늘도 리셋하고 있으신가요? 자유전공학부 조아현 / 84
- 동상 / 기본소득 관련 칼럼 및 맛에 대한 특별한 기억 발표 유럽어문학과 최용하 / 89
- 동상 / 대화 횟수와 상호 간의 공감 수준이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운동재활복지학과 허윤진 / 95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심사평

심사위원장 이상숙 교수

가천대학교 의사소통센터에서 올해 처음 진행한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는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업 방향을 고민하고자 기획되었다. 2020년 1학기 글로벌 캠퍼스와 메디컬 캠퍼스에 개설된 <인문사회 글쓰기>, <의료보건 글쓰기>를 수강한 학생들의 글이 대상이었다. 여럿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된 올해 상황에서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글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글쓰기 수업의 방향을 고민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우수한 성과물을 시상하고 수상작을 책으로 묶어 공유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만 했다. 글쓰기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글 중 강좌별로 우수작 1~2편을 추천받아 모은 후 심사하여 시상하고 강의와 심사를 담당하신 교수님들과 수업과 글쓰기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담당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우수작 76편이 모였다.

<인문사회 글쓰기>, <의료보건 글쓰기> 교과는 2020년 1학기부터 수강 인원 20명의 소규모 강좌로 재편되어 인용, 각주, 어문규정, 요약, 논평 등 글쓰기 기본에 대한 학습과 교수, 동료 등 다양한 피드백을 거치면서 자신의 글을 다듬고 완성해가는 과정적, 단계적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때문에 추천받은 글들은 자기서사, 자기성찰의 글, 여행기, 시사 비평, 칼럼, 분석적 에세이 등 다양했고 소재 또한 코로나19, 영화, 패션, 스포츠, 예술 등 매우 다채로웠다. 글들이 다양하여 심사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형식적 완결성과 내용의 진정성은 어떤 양식의 글에든 적용되기 때문이다. 설명, 분석의 글에는 인용과 그 출처를 표현하는 주가 필요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글에는 자신을 응시하는 고요하고 차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쁘게도 추천받는 76 편은 모두 수상작이 될 만큼 형식적으로도 잘 다듬어져있었고 내용적으로도 깊이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상자는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15편 등 23명만 되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글은 소재와 주제면에서 다양해지고 사고와 문장면에서 더 힘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소규모 인원인만큼 교수와의 피드백이 많아졌고 유래없는 전지구적 위기 앞에 학생들의 생각은 더 깊어졌기 때문이었을까.

대상작인 신현기의 <무용한 것들의 미학>은 생산성, 효율성, 실용성을 우선하는 오늘날 쓸모없고 비효율을 탐닉하는 여유와 용기가 바로 인간이 가진 가치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이다. 예술, 철학을 인용하며 자신의 결론에 한 걸음 씩 나아가는 지적(知的) 산책과 같은 신현기의 이글은 학기말 과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일부러 돌아가는 벗꽃길 산책길을 걷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준 수작(秀作)이다. 금상 수상자인 이주희의 <장마의 그림자>는 장마와 친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서사이다. 이 글의 힘은 멋진 수사나 말솜씨에 있기보다 자신과 친구의 시간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의 무게에 있었다. 또다른 금상 수상작 최지은의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 낸 색다른 삶의 방식>은 우리 사회의 비혼주의자 증가의 현상을 적절한 인용과 차분한 분석, 명료한 의견으로 완성한 글이었다.

<글쓰기 교과 발표회>의 목표가 시상에 있기보다 학생들이 보여준 노력과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 좀 더 새롭고 의미 있는 글쓰기 교육을 생각해보는 것이라면 이번 <성과 발표회>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교육의 방향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때문에 그 나름의 성과 또한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용한 것들의 미학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것으로 유명해진 강원도 정동진. 사람들은 왜 훌륭한 경력의 카메라 감독과 연출진이 만들어 낸 영상을 화면으로 볼 수 있음에도 정동진에 방문하는 걸까. 그건 아무리 노련한 스태프도, 아무리 아름다운 배우도 직접 방문해 바닷바람을 맞으며 감상하는 푸르른 동해의 감동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복궁에 대해 아무리 영상자료와 사진자료를 찾아 봐도, 광화문 앞을 지나갈 때의 쾌감, 광화문을 거쳐 홍례문, 근정문을 통과할 때의 감동을 받을 수는 없다. 영상기술이 발전해, 근정전 처마에 그려진 단청 하나의 곁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감상이 직접 방문해 기와의 그늘에 가려진 흐릿한 단청을 감상할 때의 감동과 맞먹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집 안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는 때로 비효율적인 것들에서 매력을 느끼곤 한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매력적인 것들은 주로 비효율적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비효율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효율 지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러한 효율 지상주의적인 사회에 직격타를 맞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삶에 무용한 예술과 철학이다. 예술과 철학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위에 언급했듯, 피로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것은 비효율의 추구이다.

아이들에게만 놀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어른에게도 현재의 즐거움 이외엔 아무 목적도 없는 행위에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놀이가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과 관계없는 부분에서도 기쁨과 흥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¹⁾

버트런드 러셀은 현대인들에게 즐거움 자체만을 목적으로 지니는 여가를 위한 무용한 지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예술과 철학이 생산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일지라도 그런 비효율에 대한 의도적인 추구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기술과 과학이 불가능을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학문이라면, 예술과 철학은 불가능을 불가능의 영역으로 존중하는 학문이다.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과학과 기술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탐구하는 반면, 예술과 철학은 이를 불가능으로 인정한 채, 표현과 사색에 몰두한다. 사랑하는 여인을 묘사할 때에 그녀를 카메라에 담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녀의 어느 부분을 어떤 각도에서 담을지 결정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다. 그녀의 모습을 그릴 때 어떠한 성분의 염료를 어떻게 섞을지를 정하는 것은 과학이다. 그러나 그녀를 그릴 때, 소묘를 할지, 수채화를 그릴지, 유화를 그릴지를 정하는 것은 예술이다.

예술-철학과 과학-기술 중,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우리는 불가능을 타파하고 그것을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과학적 발전을 슬하게 거듭한 끝에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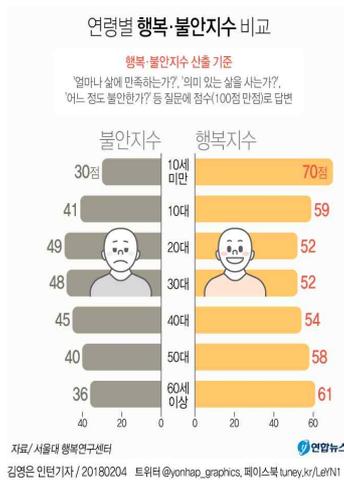
1) 버트런드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송은경 역, 사회평론, 2005, 45~48쪽.

기까지 왔다. 그러나 불가능의 해소 이전에 불가능의 인식 그 자체는 불가능을 존중하는 철학적인 태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구와 태양계에 관한 과학적인 통찰은 하늘과 태양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에서 출발했다. 하늘이라는 불가사의 영역에 대한 존중과 동경이 호기심이 되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달에 발을 내딛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과거의 지도들이 지금의 과학적 지식을 견지하고 보았을 때 우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구에 대한 지식이 그 '우스운' 지도에서 출발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비효율에 대한 존중을 경시했고, 결국 효율성에 집착하며 균형을 잃어버렸다.

세계는 황폐해졌고, 신들은 떠나버렸으며, 대지는 파괴되고,
인간들은 정체성과 인격을 상실한 채 대중의 일원으로 전락해 버렸다.²⁾

하이데거는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자연을 지배한다. 그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발돋움한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는 우리의 시대를 '고향 상실의 시대'라고 정의했다.³⁾ 그가 말하는 고향은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고향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는 환상과 같은 정서적 의미의 고향이다. 고향을 파괴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과학과 기술의 가치에 매몰된 나머지 우리의 정서적 고향을 파괴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교의식이 팽배해지고 갈등이 창궐한 것도 또한 일정부분 효율지상주의로 인한 고향 상실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은 본래 비교적인 개념이다. 아래의 <표>에 드러난 것처럼 2, 30대의 행복도가 낮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2, 30대는 당장 끝없는 경쟁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비효율의 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어떻게 낭만을 음미하고, 사색에 침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청춘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비효율의 가치를 일상에서 배제한다. 사랑을, 여유를 포기한 삶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과연 이렇게 효율의 노예가 되어 행복을 잃는 삶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표>연령대별 행복·불안지수 비교⁴⁾

이런 비단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존재의의에 치명타를

2)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7, 22쪽.
3) 박찬국, 위의 책, 23쪽.
4) 김태균 기자, 「"삶의 행복지수, 20~30대가 최저...불안감은 최고"」, 『연합뉴스』, 2018.02.04., <https://www.yna.co.kr/view/AKR20180202095300033>, 2020.07.01.

입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 그 존재는 날로 발전해가며 우리의 자리를 위협한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21세기 판 러다이트 운동⁵⁾을 전개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에 비해 우리가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이유를 명확히 해줄 것이다.

인간에게 비효율의 추구는 영원한 이상이다. 읽지도 않은 책의 표지를 찍어 SNS에 올리는 행동이 이러한 특징이 발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비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자랑하는 행동이다. 또한, 인정받는 문학, 영화들의 줄거리와 교훈을 간추려 놓은 책과 영상이 흥행하는 것 역시 비효율의 추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모순된 저의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비효율성을 탐닉할 여유와 용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비효율의 추구를 동경하는 모습. 이처럼 우리는 비효율의 향유를 두려워하면서도, 무용한 것들에 대한 추구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의 무용성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바로 죽음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찰하게 하는 계기로 '불안', 특히 '죽음'에 대한 불안을 말한다.⁶⁾ 목숨이 감각에 달해있는가를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생명의 소멸이 아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죽음은 존재 의미의 소멸이다. 케빈 켈리는 『WIRED』에 기고한 글에서 AI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이득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의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말한다.⁷⁾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인간이라는 무리에 자신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다른 존재들보다 비교 우위에 둘 수 있는가. 우리가 존엄성의 유지, 나아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 고찰할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는 동안 우리는 생각, 감정과 같이 우리 고유의 특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른 동물들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막강한 상대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의 산물이다. 이들은 업무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존재의의가 있다. 반면, 우리는 비효율을 추구하며 희열을 느낀다. 일을 끝내고 지친 날에도 하천에 핀 벚꽃을 보러 지름길에서 돌아가는 인간을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은 벚꽃이 핀 하천 산책로가 아니라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5) 러다이트 운동 : 1811~1817년 영국의 중부·북부의 직물 공업 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운동. (두산백과)

6) 박찬국, 앞의 책, 130쪽.

7) Kevin Kelly, 「The Three Breakthroughs That Have Finally Unleashed AI on the World」, 『WIRED』, 2014.10.27., www.wired.com/2014/10/future-of-artificial-intelligence/, 2020.06.24.

원문 : The greatest benefit of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We need AIs to tell us who we are.



<사진> 2017년 4월 13일 개포주공아파트에 핀 벚꽃⁸⁾

이 부분이 우리 인간과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인간은 효율을 추구하는 한편, 끊임없이 비효율을 갈망하며 사는 존재인 것이다. 어느 때보다 효율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는 비효율을 존중해야 한다. 보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효율성의 추구는 결국, 보다 편리한 비효율의 향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비효율의 추구를 두려워하지 말자. 비효율의 추구가 갖는 가치를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비효율성을 탐닉하자. 인간은 유일하게 비효율을 추구함으로써 존재의의를 갖는 아이러니한 동물이니까 말이다.

8) 직접 찍은 사진, 2017. 04. 13.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서의 행복을 강조하기 위해, 사진가의 사진이 아닌 직접 찍은 사진을 이용함.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대상 한국어문학과 신현기

‘인문사회 글쓰기’ 강의는 글쓰기 실력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업 중 이루어진 조별 토론은 나의 글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또한, 나의 글에 대해 교수님이 직접 피드백을 해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수업 내용 중에서는 각주를 다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이 좋았다. 각주를 다는 법을 알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또한, 보다 다양한 관점과 글을 나의 글에 녹여내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글을 쓸 때에 더 많은 자료를 읽어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풍성한 글이 나올 수 있었다.

이번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 제출한 칼럼을 작성하는 과제를 받았을 때에 떠올린 주제는 본문에는 간단히 언급된 예술, 철학과 과학, 기술의 대비였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던 터라, 좋은 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생각만으로 글의 구조를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었다. 고민하던 중 위의 제재에서 확장해, 효율성을 지향하며 비효율성을 경시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조명하면 나의 생각을 살리면서도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담스럽지 않고, 시의성과 참신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글을 전개할 때에는 다양한 글을 읽으며 나의 생각을 피력했다. 더불어 내가 실제로 느꼈던 것들을 통해 견해를 뒷받침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찾아보고, 나의 경험을 회상해보면서 나의 철학을 한 걸음 더 발전 시켰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 칼럼 작성을 통해 퇴고의 중요성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첫 주차 과제부터 초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이렇게 작성된 초고가 있었기에,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며 보다 나은 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퇴고의 과정에서 학우들과 교수님의 피드백도 큰 도움이 되었다.

칼럼 작성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의 효과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물론, 글을 쓰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된다. 글에서는 비효율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예찬했지만, 나 역시도 결국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때로는 효율성을 추구해야한다. 그러나 이제 비효율의 추구를 두려워할 생각은 없다. 나부터 더 적극적으로 비효율성을 탐닉해야겠다. 시험, 취업과 상관없는 독서에 열중하고, 때로는 사색에도 잠겨볼 것이다. 이를 두려워할 필요도,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다. 인간은 유일하게 비효율을 추구함으로써 존재의의를 갖는 아이러니한 동물이니까 말이다.

장마의 그림자

모든 것을 관통하는 향이 있다, 서늘하고 묵직한. 칠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의 냄새가 그려졌다. 고인 웅덩이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곰팡내, 빗줄기를 타고 사방으로 진동하는 풀내음, 질척하게 헤집어진 진흙의 토향, 그리고 마른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물비린내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섞인 향은 지독했다. 그 지독한 향은 곧 지독한 배경의 일부가 되어, 다시 지독한 기억으로 새겨지기를 반복했다. 무언가의 장단점을 논할 때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이 흔하게 사용되고는 하지만, 나에게 장마는 오직 그림자 하나만 짙게 드리워진 존재였다. 우중충하고 시커먼 그림자.

곧 장마철이 시작된다는 일기예보가 흘러나오면 나는 파블로프의 개라도 된 마냥, 언짢은 표정으로 급하게 채널을 돌렸다. 일종의 조건반사였다. 또 시작되겠구나, 중얼거리며 결국은 텔레비전을 꺼 버린 적도 허다했다. 장마는 나에게 불쾌함이기도 했고, 권태이기도 했으며, 공포이기도 했다.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누군가의 기일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행사일 수도 있었다. 뭐가 되었든, 장마는 오래도록 나를 곰삭게 했다. 그 무렵의 공기가 불려오는 기억들 때문이었다.

*

2008년 겨울,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작은 주황빛 금붕어를 선물받았다. 하필이면 며칠 전, 주인 몰래 생선을 잡아먹는 고양이에 관한 동화를 읽은 참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책의 표지와 금붕어를 번갈아 바라보다, 개를 ‘아옹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고양이(아옹이)를 보면 ”아!” 하고 소리지를 것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 준 이름이었다.

아옹이는 존재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밝혔다.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한 살 언니 박하늘은 시도 때도 없이 뉴욕에서 사 왔다는 스노볼을 눈앞에 내밀며 자랑했었다. 새하얀 인공 눈이 요란스레 훑날리다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마치 크리스마스의 흔잡하고 화려했던 공기가 26일 아침만 되면 숙취를 토로하며 침체되는 것처럼. 그 이들의 변화가 짧은 십초 안에 다 담겨 있었다. 둥근 유리구 속 도자기로 빚어진 고층 빌딩들과 피고 지는 인공 겨울이 내심 부러웠었다. 하지만 아옹이 덕분에, 나는 뉴욕의 스노우볼보다 다섯 배는 예쁜 서울의 금붕어볼을 갖게 된 것이다. 박하늘은 자기의 ‘볼’이 더 멋있다고 싸움을 붙여 왔지만, 그 말은 귓등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이미 아옹이에게 매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옹이는 참 예뻐다. 어항 안을 힘차게 헤엄치는 꼬리 결이 예뻐고, 감기지 않는 눈동자의 반짝거림이 예뻐고, 유연한 움직임에 따라 넘실거리는 어항의 표면이 예뻐다. 이따금씩 낮이 나간 채 잔잔

한 몸짓을 한참이고 관찰했다. 모로 난 비늘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기억하려는 의지로.

형제자매 하나 없고, 학교에서 붙어 다니는 또래 친구마저 몇 없던 나는, 유독 아옹이에게 깊은 정을 붙였다. 마치 같은 배에서 난 혈육인 양 지극정성으로 대했다. 우리는 밥도 같이 먹었고, 잠도 같이 잤다. 정확히는 내가 밥 먹는 시간에 맞춰 사료를 넣어 주고, 어항을 내 침대 협탁 위에 둔 채 잠든 것이지만. 들숨 날숨을 따라 여닫히는 아가미를 보고 있으면 괜히 들떴다. 마음 깊은 곳이 간지럽기까지 했다. 굶을 수도 없는 가려움이 몽근하게 꽃피면 나는 배갯잇을 붙잡은 채 말없이 쓰다듬고는 했다. 보드라운 천이 아옹이의 꼬리 꼬트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아직 어려서 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함으로. 아버지께서는 잠들기 직전까지도 어항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나의 조건 없는 애정이 '책임감'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까지는 모든 관심과 사랑이 오롯하게 내 것인 줄 알았다. 이제는 그 관심과 사랑을 바깥으로 건네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2010년 여름, 뉴스 속 기상 캐스터는 싱긋한 웃음과 함께 기나긴 장마의 시작을 전했다. 그 이후부터 내 작은 금붕어는 부쩍 이상해졌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몸체는 한 겹 비닐에 쌓인 듯 탁한 빛깔을 띠었다. 비단결 같던 꼬리는 썩은 시금치마냥 시들거렸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항을 통째로 들고 동네 동물 병원에 찾아가 보았지만, 수의사는 별다른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한 것 같다고, 약을 넣어 주면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만 했다. 그리고는 어항 물에 뿌리는 액상 영양제를 처방해 주었다. 아침저녁으로 한 방울씩 떨어트렸다. 핏물 같은 붉은색이 느릿하게 퍼져 나간다. 까슬한 피부 표면에 달기도 전에 희석되기를 반복했다. 어릴 적의 나는 색이 번지는 원리인 줄 알았다. 투약을 반복하면 액체의 붉은색이 아옹이에게로 옮겨 갈 것이라고 믿었다. 분명 짙은 주황빛을 되찾을 것이라고. 그 맹신을 반증하듯, 꼬리의 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 갔다.

영어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물기 묻은 우산을 현관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채 신발을 벗고, 흥건해진 청바지 끝을 질질 끌며 방으로 향했다. 그때 얼핏 아옹이를 봤는데, 개 눈알이 배에 달려 있었다. 물고기들은 죽으면 몸이 뒤집힌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었다. 이상하리만치 방망이질 치는 심장 박동을 뒤로하고 급하게 어머니를 찾았다. 이후의 기억은 선명하지 않다. 내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부모님의 허둥거림, 그리고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만이 어렴풋하다.

아옹이의 뒤집어진 시체에서 풍기던 물비린내가 창문 밖에서도 흘러들었다. 장마 탓일까. 나는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살인사건의 범인을 응시하듯, 퍼붓는 물줄기 너머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어찌면 장마 탓일지 몰랐다. 코를 찌르는 빗물 냄새에 소름이 끼쳐 창문을 닫고, 바닥에 흠뻑 젖은 물방울을 마른걸레로 닦아 내었다. 장마가 아옹이를 데려간 것이다.

하늘이는 아옹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그래?”, 그리고 짹짹한 꼬덕꼬덕. 그게 다였다. 나는 그날 일기를 마치며 이렇게 적었다. ‘박하늘이 제일 나쁘다. 자기 일 아니라 신경 안 쓰겠다는 거지.’ 서운함을 꺾꺾 눌러 담은 필체였다.

며칠 뒤, 우산의 지름만큼이나 멀찍이 떨어져 함께 등교하던 날 아침, 박하늘은 뉴욕에서 샀다던, 이 년 전의 그 스노볼을 건네 왔다. “오랜만이지?” 하는 말과 함께. 무슨 말로 달래야 좋을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이걸 받으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는 사족도 덧붙였다. 참 박하늘답다는 생각을 했다. 껌씹죄로 두 번 정도 거절하다가 하는 수 없다는 척하며 받아 줬다. 아니, 사실 껌씹죄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다. 전날 일기의 마지막 두 문장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박하늘식 위로 덕에 나는 내 첫 동생을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 줄 수 있었다. 머리말을 차지하던 유약한 생명이 그리워질 때마다 스노볼을 위아래로 흔들면 되었으니까.

*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남들이 ‘징크스’라고 부르는 규칙의 반복이 시작된 것이. 매해, 공기 중 텅텅하고 끈적한 물비린내가 진동할 즈음이면 나는 오래 아끼던 무언가를 보내야 했다.

2011년 여름, 가장 좋아하던 파란색 목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 모르는 사이 줄이 끊어지기도 했나 보다. 박하늘과 저녁 내내 놀이터를 뒤져보고, 학교부터 집까지의 경로를 오가며 초조하게 발을 굴러도 별 소용은 없었다. 틈만 나면 걸리적거렸던 줄이었다. 뽕박질할 때마다 살갓이 쓸리는 감각이 싫어서 목덜미를 긁적이는 버릇이 생겼었을 정도로. 이제는 무의식중에 손을 뻗을 때마다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되려 허전했다. 한 달 치 용돈 오만 원이 증발했다는 것보다, 익숙한 버릇이 갈 곳을 잃었다는 게 더 슬펐다.

2012년 여름, 부모님의 별거가 시작되었다. 아버지께서는 묵직한 여행용 가방의 손잡이를 그려진 채, 그보다 묵직해 보이던 현관문을 탁 소리 나게 닫으며 집을 나섰다.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 사랑한다는 말을 곁들인 자장가를 불러 주셨었는데. 사랑한다면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었던가? 박하늘은 한참 동안 내 눈물 젖은 푸념을 듣다가, 전화와 문자를 자주 하면 될 것이라 조언했다. 내 속도 모르고. 아빠는 멀리 떨어진 나라로 여행을 갔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짙고 뻑뻑한 장마만큼의 장벽이 생긴 것 같았다. 고작 전화나 문자 따위로는 영영 뚫지 못할 장벽.

13년 여름에는 발목을 심하게 다쳐 기대했던 제주도 여행이 취소되었고, 14년 여름에는 너무 좋아했던 논술 수업을 그만둬야 했다. 15년 여름에는 못된 소문이 퍼져 학교 친구를 모두 잃었다. 장맛비가 떨어지기 무섭게 실망과 조롱을 담은 몇 통의 카톡이 날아왔다. 그 이후로는 영문도 모르는 채 빌고 또 빌었던 기억밖에 없다. 물방울이 창문을 강타하는 소리마저 나를 겨냥한 비난 같았다. 주동자를 색출하고, 오해가 풀린 뒤에야 때늦은 사과를 받기는 했지만, 서먹함과 실망을 감출 자신이 없었다. 박하늘이었다면 터무니없는 낭설보다 나를 먼저 믿어 줬을 텐데. 이주희가 그럴 리 있겠냐고 도리어 화를 냈을 텐데. 미련 없이 연락 그만하라고 했다.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다는, 다소 불필요한 화풀이까지 덧붙이면서. 흔한 말을 빌려, 이 년 동안 나는 ‘내가 모두를 왕따시키는 것’이라고 자위하며 버텨야 했다. 그래서였을까, 2016년 여름은 장마가 나를 한 번 봐줬다.

돌이켜보면 공교로울 뿐이다. 전부 장마가 절정일 때 일어난 일이었다. 현관에서 한 발자국만 뺨으면 시원한 물줄기가 모든 것을 씻어 내리는데, 내 안에서만큼은 끈끈한 공기가 쌓이고 쌓여, 급기야는 끓아 터져 갔다. 해가 지날수록 체념이 파리를 틀었다. 습관처럼 장마를 원망했다.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처럼. 그래도 박하늘이 옆에 있어 다행이었다.

*

2017년 여름, 대치동 학원가에는 주말이 없다. ‘학교에 안 가면 학원을 가야지!’가 당연한 동네였다. 박하늘과 함께 수강한 영어 강좌는 토요일 아침 열 시에 시작했다. 툭툭 부은 눈으로 시리얼 그릇에 우유를 붓고, 적당히 녹록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가방을 챙겼다. “학원비 아깝지 않게 수업 때 집중해서 들어. 그래야 내신 잘 받는다.” 어머니의 주기적인 잔소리를 아침 영양제처럼 삼키며 집을 나섰다. 엄마, 아무래도 수시는 글러 먹은 것 같아요. 식도에 얽힌 시리얼이 치기 어린 투정을 부렸다.

수화기 너머로 신경질적인 핀잔이 들려왔다. “야, 빨리 오라고 했잖아!” 가뜰이나 비 와서 짜증 나는데 박하늘까지 심술이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아홉 시 반에 은마사거리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만났다. 물론 아침잠이 많은 내가 항상 십 분 정도 늦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사십 분에 만나는 셈이었지만. 건성으로 사과하며 익숙한 길을 따라 도넛 가게와 안경점, 마트를 뛰어가듯 지났다. 학원에는 정각 오 분 전에 도착했다. 다행히 지각은 면해서 박하늘의 심술도 멎었다. 그날 학원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내리던 비는 우리가 집으로 향하기 전, 근처 공원에 들려 숨을 고를 때가 되어서야 그쳤다.

양말까지 축축하게 젖은 짹짹함에 오만상을 구겼다. 우리는 물기 어린 정자 위에 걸터앉았다. 그래도 겹옷으로 열추 털어 내고 나니 제법 의자 구실을 했다. 문득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세 시간 공부하고 오 분 쉴 때 딱 선생님께서 자습실에 들어오신다거나,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자마자 어머니께서 피자를 사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하필 비 피할 곳을 찾자마자 비가 멎었다. 야속한 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식의 영양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하릴없이 아이스크림을 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하늘이 어깨를 톡 치며 하늘을 가리켰다. 은은한 무지개가 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무지개는 생각보다 예쁘지 않았다. 화려하고 반짝거리기는커녕, 볼품없이 색과 색이 뭉개져 있었다. 사진에서도 색이 잘 잡히지 않아서, 언뜻 보면 칙칙한 하늘에 구름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식이었다. 짐짓 실망한 눈으로 휴대폰 문자만 만지작거리는데, 박하늘이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 장마 부럽다. 재는 그림자도 무지개색이네.
-
- 야, 나 방금 한 말 완전 멋있었지.

말문이 막혔다. 비 온 뒤 날이 개면 무지개가 뜬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근데 비의 그림자가 무지개일 것이라는 생각은 박하늘밖에 못 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느라 감탄할 겨를

도 없던 나였는데, 박하늘은 항상 한발 앞서 있었다. 개는 그런 애였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야를 가장 예쁜 방식으로 공유해 주던. 그토록 미워했던 장마가 그 찰나만큼은 아주 조금 좋아졌을 정도로.

*

2018년 여름, 누구보다 밝았던 박하늘이 이상해졌다. 말수가 줄고, 밖에 나오는 날이 줄었다. 새벽마다 전화해 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을 돌릴 때도 있었다. 반팔을 입지 않고는 못 배기는 날이 찾아와도 긴팔만을 고집했다. 수험생 스트레스겠거니 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박하늘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박하늘이 흰 셔츠를 입을 때면 어김없이 비치는 손목의 핏선을 바라봤다. 미리 눈치는 쳤지만 티는 못 냈다. 웬지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시간이 지나 박하늘의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그 증상은 완화되지 않았다. 언니, 이제 내가 수험생이니깐, 나 대학만 붙으면 우리 제주도 여행도 가고, 코엑스 야쿠아리움도 가자. 용돈 악착같이 모을게. 입시 끝나면 언니네 엄마랑 내 엄마까지 넷이서 미국 비행기도 타 보자. 최선을 다해 달래 봐도 박하늘은 그저 허황된 소리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박하늘은 대학 근처로 이사를 했다. 지하철을 한 시간 넘게 타야 만날 수 있었다. 수험 생활 중에는 왕복 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자주 만나자는 말, 주말마다 밥도 같이 먹자는 말을 빼먹지는 않았다. 물론 지키지는 못했다.

연락은 간간이 이어졌다. 서로에게 무심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바빠서. 주에 한 번, 이따금 “하늘아, 너 괜찮아?” 물으면 “응, 괜찮아.” 했다. 모처럼 오래간만에 찾은 평화였다. 평화인 줄로만 알았다. 박하늘과 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우리가 곧 죽어도 거짓말은 안 하는 애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박하늘이 마냥 괜찮아진 줄 알았다. 겉보기에는 흠결 하나 없었으니까. 다만 그 애는 소리 없이 개처럼 수영하는 중인 것이었다. 호흡을 위한 머리만 수면 위로 올린 채, 나머지는 물 밑에 잠겨 있었다. 바닥부터 망가진 정신은 찰나 별 들어도 마르지 않았다.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다. 이런 우울이었다는 것을, 이런 우울에는 임시방편조차 안 먹힌다는 것을.

얇전히 기생하던 균열이 기어코 갈라지며 일을 그르쳤다. 7월 모의고사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그때 부고 문자라는 것을 살면서 처음 받아 봤다.

*

사인은 투신이라고 했다. 박하늘, 자기 이름을 따랐던 것일까. 하늘과 한 뼘 가까운 곳에서, 한 뼘만큼 덜 수고스럽게 떠났다. 근데 이상했다. 아옹이가 죽었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아빠가 짐을 싸고 나갔을 때, 인대가 끊어졌을 때, 마지막 눈술 수업을 마쳤을 때, 질 나쁜 소문이 퍼졌을 때까지, 불운을 사주하기라도 한 것처럼 시종일관 퍼붓던 비가 그날은 안 왔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것처럼. 2019년 여름은 마른장마였다.

구 년 전의 그 날을 반추했다. 지갑 줄을 잡으려 손을 뻗었는데 허공만 쥐어졌던 날. 무의식의 버릇이 갈 곳을 잃은 날. 차라리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어야 했다. 장마를 원망하던 버릇이 갈 곳을 잃어서, 이제는 나도 도무지 어쩔 줄을 몰랐다.

장례식장 공간을 채우는 냄새는 장마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듯한, 서늘하고 묵직한 향. 폐부 끝까지 들숨을 채우니까 어디 한 구석이 폭 뚫리는 것 같았다. 실감이 안 났다. 보통은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거부한다고들 하던데, 정반대였다. 감정이 후각에 묶여 수직 낙하하는 동안, 이성은 죽기 살기로 헤엄쳤다.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박하늘의 영정 사진과 시선을 맞추며 되뇌었다. 이걸 내가 아는 박하늘이 아니다, 이걸 내가 아는 박하늘이 아니다. 결국, 그날 식당 밖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눈물 한 방울 안 떨어졌다. 여전히 크고 작은 횡단보도 세 번만 건너면, 그 은마사거리의 휴대 전화 대리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질식했을 누군가의 청춘이 어렵곤했다. 말을 아꼈다. 오히려 축하하고 싶었다. 나는 언제나 박하늘의 선택을 존중했으니, 역시 이번 선택도 존중하고자 했다. 다만 삶의 주춧돌 자처해 놓고 인제 와서 스스로를 버린 것 하나는 조금 억울했다.

하늘이는 끝까지 박하늘다웠다. 유언장 대신 편지를 남겼다. 어머니께, 아버지께, 몇몇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나에게. 의미 없는 추억 되짚기를 A4 세 장 분량으로 남겨 놓고 이렇게 마무리지었다. 주희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자책하지 마, 그리고 수능 잘 봐.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수능 잘 봐.'였다. 이것마저 박하늘답다. 헛웃음도 안 나왔다.

반 접은 종이와 함께 박하늘이 살았고 죽었던 아파트를 찾았다. 옥상 구석에서는 메말라 가는 난초가 방치되어 있었다. 누군가 버리려고 내둔 것 같았다. 싸구려 한지를 아무렇게나 구겨 놓은 모양새였다. 버섯한 꽃잎이 허공에 대고 헛구역질을 흘뵈렸다. 나 좀 봐 주지 그랬냐고, 남겨지는 것도 죄냐고. 길 잃은 대답이 허끝에서 맴돌았다. 그래, 최악 같은 남겨짐도 존재하는 것 같다고.

*

일부러 아무 일도 없던 양 굴었다. 굳건한 방어 기제였다. 너무 굳건해서 본인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 방어 기제. 잘 먹고 잘 잤다. 습기 빠진 밥알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는 것을 배워 갔다. 모의고사 문제지 묶음이 내 생명줄인 것처럼 붙들어 댔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악착같이 숨겼다. 일단 누구 말마따나 수능을 잘 보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애도는 유보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박하늘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확률에 모든 기대를 걸어 두며, 죽음으로부터 눈을 돌렸다. 필사적으로 외면했다.

외면이 거듭되니까 9월 이후부터는 그 마음이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박하늘은 안 죽었어.”가 급기야는 “박하늘이 그렇게 되든 말든.”으로 변했다. 애초에 우리가 언제 친한 적 있었냐는 듯, 박하늘이라는 사람을 애초부터 몰랐던 척했다. 의도적으로 박하늘의 이름 석 자를 지워 나갈 때마다 시험 성적이 곤두박질쳤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

2019년 겨울, 수능을 마쳤다. 허무했다. 너무 허무해서, 이따금 못된 생각이 들기도 했다. 평생을 보고 달려온 종착역에 달랑 돌멩이 하나 놓여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기분이었다. 그런데도 그 돌멩이가 어이없을 만큼 값지고 소중한데, 또 고작 이깃 돌멩이 하나에 몽클해지는 나 자신이 너무 안타깝워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손바닥으로 포개는 수밖에 없었다. 그 애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내 비루한 돌멩이를 걱정하고, 응원해 주었던 것이니까.

서울의 거리에는 함박눈 대신 제설 소금이 내렸다. 첫눈의 설렘은 새하얀 인공 가루로 와해된 지 오래였다. 박하늘의 스노볼을 떠올렸다. 그 투명한 구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칙칙하고 유해한 가짜 눈에 둘러싸여, 사방으로 달려 있는 뚜껑 안을 떠다녀야만 하는, 그런. 사계절 내내 겨울일 그 작은 도시에도 첫눈이라는 게 존재했을까. 박하늘이었다면 이 질문에 무어라 답해 주었을까. 그 애의 시점이 궁금했다. 그 스노볼을 왜 그렇게 좋아했던 것인지,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죽어 갔는지. 아마 나는 평생 모르고 살 것이다. 이제 '그 애의 시점' 같은 건 없었다. 박하늘의 눈이 아예 감겼기 때문이다.

*

대학을 붙었다. 당연히 불합격일 줄 알았던 학교에서 추가 합격 전화가 왔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조언에 따라 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다. 추억으로 가득했던 동네를 떠나며 모든 것을 두고 오는 기분이었다. 또 모든 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곳은 풍경도 다르고, 분위기도, 사람들도 다 달랐다. 전에는 20층에 살았는데, 이번에는 2층이었다. 그때는 손을 뻗으면 하늘에 닿을 것 같았다. 지금은 아무리 고개를 쳐들어도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박하늘과도 멀어졌을까 봐 무서웠다.

근데 아니었나 보다. 며칠 전 창문을 열자마자 직감했다. 방으로 파도 물밀 듯 스며드는, 나의 모든 결핍과 상실을 관통하는 장마 향기를 맡으며 확신했다. 나는 아직도 박하늘을 못 보냈다. 태산처럼 쌓였던 게 티끌에 무너졌다. 당시에는 직시할 수 없던 애도가 지금에서야 아팠다. 박하늘은 얼마나 아팠던 걸까. 나에게는 그리워할 자격도 없는 걸까? 그 서늘하고 묵직한 장마 냄새에 억눌려 왔던 모든 것을 흘려보내기라도 하려는 듯, 문틀을 붙잡고 오래 울었다.

비겁한 것 같다. 나는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가장 사랑했던 친구와 작별했다. 이 순간까지도 비겁한 변명을 하나 하자면, 나는 적어도 시간만큼은 중립을 지킬 줄 알았다. 그래서 흘러간 시간만큼 내가 덜 슬플 줄 알았다. 또한, 박하늘은 내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항상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다. 애를 도려내고 나면 나는 결코 멀쩡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멀쩡한 수험생이고 싶었다. 그래서 박하늘의 부고를 듣자마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일시적으로 폐기해 버렸다. 그러지 말 걸 그랬다. 시간은 부메랑 같아서, 던질 때는 후련하지만 돌아올 때는 사람 목을 노린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몇 달 전 곱씹었던 질문이 다시금 떠오른다. 박하늘의 시점은 어떨까. 나에게 무어라 답해 주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욕을 했을까? 답은 없다. 아까 말했듯, 이제 박하늘의 시점

은 없고, 나는 그것을 평생 모르고 살 테니까. 그래도 박하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다. 감히 예상해 본다. 박하늘은 장마 너머의 무지개를 볼 줄 아는 애였다. 내 강박적인 도피 너머의 무한한 애정도 포착했을 것이다. 이마저도 합리화일지 모르겠지만.

2020년 여름, 이제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기상 캐스터의 기계적인 친절이 아닌, 박하늘의 기일이다. 나는 아마 평생토록 장마를 땃하며 살 것이다. 장마는 나에게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자, 언니가 떠났던 7월 2일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행사로 각인되었으니까. 하지만 향기 위에 각인된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여름의 물비린내 안에는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뛰어다니던 놀이터의 흙 냄새도 있고, 박하늘과 먹던 아이스크림의 새콤달콤한 향기도 있고, 매일같이 학원을 전전하며 말던 대치동 특유의 짹짹한 도시 매연 냄새도 있다. 결국 한 명에게로 귀결되는 기억이다.

*

모든 것을 관통하는 향이 있다, 사랑스럽고 다정한.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의 냄새가 그러하다. 오늘은 일기예보를 끝까지 다 봤다. 애증의 장마, 그 지독한 냄새 안에는 두 종류 그림자가 한데 얽혀 있더라. 하나를 도무지 등질 수가 없어서, 나머지 하나도 끌어안아 보기로 했다. 철 지난 용서를 구하며.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금상 유럽어문학과 이주희

이정아 교수님의 인문사회 글쓰기를 수강했던 유럽어문학과 20학번 이주희입니다. 인문사회 글쓰기는 제 일주일의 시작을 여는 강의였습니다. 월요일 1교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 글쓰기에서는 각주, 인용법 등의 글쓰기 윤리를 배우기도 했고, 발상, 개요, 초고, 수정 등의 과정을 익히며 초점화된 글쓰기, 칼럼, 논평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데에 많은 힘들을 느꼈었는데, 유익한 강의와 꼼꼼하고 인자하신 교수님 덕분에 글쓰기 실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 발표회에 제출한 글은 초점화된 글쓰기 때 완성하였던 과제물입니다. '맛과 냄새에 관한 기억'라는 주제가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해서, 세부 주제를 설정하는 데에 가장 큰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써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다소 무겁지만 꼭 직시했어야 할 사건에 대해 적어 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평소보다 어려운 일 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모로 답답함은 쌓이는데, 그것을 해소할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답함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덩어리처럼 뭉개져 있는 순간들을 하나씩 쪼개어도 보고, 멀리 실눈으로 보기도 하면서 계속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담을 수 있는 단어를 찾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과제물을 완성한 순간에는 후련함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각과 경험을 구체화하고, 문자화하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정 소모와 시간 투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훌륭한 도구이자 배출구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너무나도 값진 지식과 교훈들을 가르쳐 주신 이정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 낸 색다른 삶의 방식

어릴 적 나의 주변에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과 나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자연스레 받아들였고, 어릴 적 유독 많이 싸우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나는 결혼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세 1인 가구는 약 29.3%⁹⁾, 20대 비혼주의자 비율은 여성이 약 57%, 남성이 약 37.6%이다.¹⁰⁾ 비혼에는 경제적 이유,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자아실현, 결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하나의 이유로 비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세 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혼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나는 나와 비슷하게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는 친구들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자주 토의를 해왔다. 수다와 비슷한 토의는 주로 서로 챙기며 의지할 수 있도록 근처에 살자 또는 같이 살자는 식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이 토의에서 서로 책을 추천하거나 추천받아 읽기도 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모이면 자연스럽게 책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추천을 위해 선정된 책들 역시 각자가 바라는 삶에 관한 책들이 많았다. 그 과정을 통해 황두영의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친구가 추천해 준 이 책은 내가 바라던 삶의 방식을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혈연 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살 때’ 필요한 사회복지혜택과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이 동거생활을 시작하고 해소할 때 필요한 공정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¹¹⁾ 우리나라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을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규정”함으로써 비혼 단독가구 혹은 비혼 단독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체 가족을 가족형태로 인정하지 않는다.¹²⁾ 즉, 사고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급히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법률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술에 동의할 수 없다. ‘나’와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런 상황에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과 혼인이나 혈연 관계는 아닌 ‘나’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준다.

9) 통계청(KOSIS), 1인가구 비율, 2018.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1%EC%9D%B8%EA%B0%80%EA%B5%AC+%EB%B9%84%EC%9C%A8, 2020. 07. 03.

10) 김소연, 「“비혼한다는 여자들, 남자 없어서 그런거 아니야?”」, 『한국경제』, 2020. 04. 18,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4177174H>, 2020. 07. 03.

11) 황두영, 『외롭지 않을 권리』, 시사IN북, 2020, 7쪽.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이북리더기 기본설정 기준.)

12) 이성은,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제 7권 2호, 2015. 09, 73-112쪽.

생활동반자법에 관해 여러 논의와 비판이 오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 법에 대해 동성혼 합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는 가족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혼인과 출산을 지금보다 더 줄어든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혹은 가짜 생활동반자를 만들어내서 생활동반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나 권리를 탈취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성애자나 결혼을 앞두고 서로를 알아가길 원하는 연인 또는 비혼주의자도 있지만, 1인 가구로 살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여성이나 노인도 있다. 동성애자나 결혼을 앞둔 연인에게는 서로 다른 삶을 고수해 온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여성이고 비혼주의자인 나는 생활동반자법을 이용해 함께 살며 거주나 생활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더불어 배달음식을 시킬 때 혼자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지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늦은 밤 취객이 잘못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 노인의 경우 누군가와 함께 살고 그들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만으로 고독사를 면하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쓰러졌을 때 늦지 않게 병원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 단지 동거가 아닌 생활동반자의 법적 효력이 함께 하는 동거가 되었을 때, 이런 요소들이 비로소 빛을 발한다. 그동안 사회에서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생활동반자법은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준다. 장애인에게 역시 혼인이나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생활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비슷한 맥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인 황두영은 생활동반자법에 관해 혼인 제도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사연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와 사회가 정해 놓은 삶이 아닌,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도 괜찮다고 다독이는 유연한 제도라고 설명한다.¹³⁾ 나는 내가 선택한 비혼이라는 삶의 방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 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홀로 외롭지 않고 이웃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와 함께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이 필요할 때 내게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남은 가족이 없어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줄 사람이 존재한다. 이 법은 사람이 사람에게 더 책임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법이며 가족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도 가족의 믿음과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외롭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 법을 통해 상속이나 가족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혼자 살아가던 독거노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이라는 제도의 대체재로써 서로 위하는 삶의 방식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13) 황두영, 『외롭지 않을 권리』, 시사IN북, 2020, 239-240쪽.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이북리더기 기본 설정 기준.)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강유진, 「성인남녀의 비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 28권 2호, 한국지역사회생활학회, 2017. 05, 241-256쪽.

이성은,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제 7권 2호, 2015. 09, 73-112쪽.

호정화,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한국인구학』 제 37권 4호, 2014. 12, 25-59쪽.

황두영, 『외롭지 않을 권리』, 시사IN북, 2020

2. 기타자료

김소연, 「“비혼한다는 여자들, 남자 없어서 그런거 아니야?”」, 『한국경제』, 2020. 04. 18,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4177174H>, 2020. 07. 03.

통계청(KOSIS), 1인가구 비율, 2018,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 ty&fbm=1&ie=utf8&query=1%EC%9D%B8%EA%B0%80%EA%B5%AC+%EB%B9%84%EC%9C%A8, 2020. 07. 03.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금상 경제학과 최지은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글을 완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을 쓴 경험이 적었던 저는 매 수업에 걱정과 불안을 가득 안은 채 참여했습니다. 잘 쓰고 싶은 마음과 달리 잘 써지지 않는 글 때문에 눈물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초고-피드백-완성으로 짜인 글을 쓰는 과정과 동료피드백이었습니다. 초고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초고를 작성할 때는 짜임새 있게 잘 쓰인 글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난잡하고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껴져도 '글을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뒤에는 정리는 안 되어있지만 완성된 초고를 여러 번 읽으며 여러 차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캠퍼스에 제가 쓴 글을 업로드하고 동료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동료피드백을 통해 나의 글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주는 친구들의 여러 평가와 의견을 접할 수 있었고, 혼자서 글을 쓸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해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완성된 글을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하고 다시 읽어보며 문장을 다듬거나 단어를 수정하는 등 앞선 과정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칼럼 역시 같은 방식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쓰기 수업이 화상 강의로 진행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과 친구들이 서로 배려하며 수업을 진행한 덕에 수월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 두려움과 걱정을 품고 시작한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이었지만, 이 수업 덕에 각주나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법과 같은 가장 기초부터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까지 다양한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화의 기술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많이 자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내일 건강하게 만나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는가? 일상적인 말? 뻔한 말? 나에게 이 말은 18살 때의 나를 영영 올게 만든 말이다. 내가 18살 때 건강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자퇴를 하게 되었을 때였다. 모든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였다. 자퇴서를 쓰기 전날, 선생님께서는 나를 교무실로 불러내셨다. 자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끝으로 선생님께서는 저 말씀을 하셨다. 밥을 잘 챙겨 먹는 것, 잠을 많이 자는 것, 하루를 잘 지내보는 것. 이것들은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상적인 것일지는 몰라도 나에게서는 당시에 너무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도 감동적이었고 힘이 된 말이었다. 이처럼 타인을 고려한 대화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을 고려한 대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악성 댓글로 인한 소송은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¹⁴⁾ 이는 타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화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대화의 불통이 대화의 부재를 유도해내고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불통사회라고 지칭되어질 만큼 소통 부재가 심각하여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라고 한다.¹⁵⁾ 또한,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연락 선호 유형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채팅이나 문자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화가 편하다며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채팅이나 문자의 경우 텍스트의 말투가 딱딱하다며 오해를 빚어내기도 한다. 연락 빈도 유형의 차이로도 갈등이 발생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친구나 특히 연인 관계에서 연락 빈도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 오해를 빚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상대방을 고려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상대방을 고려한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상대방의 말에 비언어적 기법을 이용하여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심리분석관 권일용 씨에 따르면 그가 만난 범죄자 1000명 중 절반 이상은 면담이 끝난 후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¹⁶⁾ 이는 경청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아직 상대방을 고려하여 말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상대방을 고려하여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적절한 비언어적 기법을 이용하여 공감과 이해의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고려한 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대화 기호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연락 매체를 예로 들면, “상대방은 어

14) 윤소영, 「대한민국은 ‘악플공화국’인가」, 『주간한국』, 2015.08.01.
(<http://weekly.hankooki.com/lpage/society/201508/dh20150801103445137780.htm>, 2020.07.17.)

15) 한경닷컴뉴스팀, 「소통 부재의 시대... 진정한 행복 ‘관계의 힘’」, 『한국경제』, 2013.10.07.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3100797987>, 2020.07.17)

16) 유설희, 「범죄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배제감」, 『경향신문』, 2018.7.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242054005, 2020.7.17)

편 매체로 연락하는 것을 선호할까? 나는 채팅이나 문자로 연락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상대방은 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구나”라며 상대방을 파악하고, ”상대방은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대화 방식을 선호하는구나“라며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른 대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대화 방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파악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고 내에서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나 전달법’을 통해 서로의 대화 방식을 조정한다. 나 전달법이란 문장의 주어가 ‘나’로 시작하여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삼갈 수 있는 대화법이다. 바로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대화 기호를 파악하고 이해했다면 서로 대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나 전달법’을 통해 상대방의 대화 방식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않고 상대방의 대화 방식을 존중함을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타협의 자세로 쉽게 대화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란한 어휘나 제스처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닌, 대화의 상대방을 경청해주고 이해해 줘서 어떠한 대화보다 아름다운 대화인 상대방을 고려한 대화.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방사선학과 김령은

의료보건글쓰기 수업에서는 언어 예절, 출처 표기 등과 같은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인문학적 소양, 의약품 표기 방법 등과 같은 보건 관련 글쓰기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모둠활동을 통해 토의한 후 직접 글 쓰고 발표하고 서로를 평가해주는 활동을 하였다. 개인 과제의 경우에는 수업에서 과제 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여러 활동을 거쳐 과제에 필요한 글쓰기를 한 후 과제 제출 마감 날짜에 맞춰 각자의 레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팀 과제의 경우에는 수업에서 과제 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팀원끼리 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역할 분담을 한 후 ppt 제작, 발표 연습을 한 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처음에는 글쓰기라는 수업이 딱딱하게만 느껴졌는데 기본적인 글쓰기 이론뿐만 아니라 보건 관련 글쓰기 이론도 알 수 있었고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입체적으로 기를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발표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학생들끼리 토론한 활동에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달라져야 하는 말하기 방식에 고민해볼 수 있었고 온라인 수업에 대비하는 교수님의 노력이 인상 깊었다. 또한 학생들 간 피드백을 통해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볼 수 있어 향후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고민도 해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이 수업을 수강한 후에는 다른 수업에서 레포트를 작성할 때에도 자신감이 생겼고, 피드백을 통해 나의 말하기 방식에서 속도, 발음 등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주의하며 말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편리한 무인주문기의 이면 ; 어떤 이들은 주문조차 할 수 없다

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화라는 큰 틀 안에서 셀프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무인점포를 비롯한 무인택배, 무인자동차 등 무인화 산업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무인서비스는 챗봇, 디지털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형태의 무인주문결제시스템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김유리, 2019). 무인주문결제시스템은 매장의 운영효율과 매장 공간의 효율을 높여주므로 패스트푸드점, 카페, 영화관, 병원, 공공장소, 교통시설 등 다양한 분야 및 장소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 사용자의 경우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이러한 무인주문결제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효율성의 극대화만을 고려하여 도입한 무인서비스가 한편에서는 디지털 소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무인주문결제를 위한 디지털 기기인 키오스크(Kiosk)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필자 또한 키오스크 기기를 많이 접했을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및 결제를 한 경험도 다수 존재한다.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여러번 주문을 하게 된 후에는 사용법에 적응이 되어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게 주문 및 결제를 해왔다. 그렇게 키오스크를 편하다고만 인식해왔던 중에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 한 분을 보게 되었다. 그는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헤매더니 결국 주문을 실패하고 직원에게 주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직원은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할 것을 안내했고, 결국 그 노인은 주문을 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나갔다. 이같은 경험을 한 후,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던 무인서비스가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키오스크의 국내 성장률은 연평균 14%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약 70-80%에 달한다(유재경 외, 2019). 키오스크는 비단 패스트푸드점뿐만 아니라 관공서, 은행, 쇼핑몰,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도 도입되고 있다. 이제는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이 불가피하며 이를 사용하는 능력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노년층에게 이러한 키오스크의 사용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노년층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할 경우 겪게 되는 애로 사항은 유재경 · 김재경 · 홍소현 · 허정윤의 논문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¹⁷⁾

구분	사용자 불편사항
프로세스	빠른 화면 전환으로 인지 어려움
	다음 단계 진행 어려움
	선택 단계에서 제공되는 버튼이 많아 정확한 기능 선택이 어려움

17) 유재경 · 김재경 · 홍소현 · 허정윤, 「무인주문 키오스크의 고령친화적 사용자경험 개선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2019, 172-173쪽

인터페이스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려움
	영문을 이해하기 어려움
	눌러야 하는 버튼 인지 어려움
	이미지, 아이콘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
시스템	지불 방법이 제한되어 있음
심리적 측면	느린 속도 때문에 뒤의 대기 줄이 부담스러움
	반복 실패 시, 민망하고 창피함을 느낌

프로세스는 전반적인 키오스크 사용 흐름과 관련 있으며 인터페이스는 화면 요소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시스템은 키오스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노년층이 가지는 감성에 대한 부분은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노년층이 이와 같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 유재경 · 김재경 · 홍소현 · 허정윤은 노화를 심신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⁸⁾

생물학적 노화		
신체적 측면	시각	시각적 명료성 상실 근시 및 원시 시각영역 축소
	청각	청각 기능 저하
조작적 측면	손 조작	반응 속도 및 움직임 저하
지능적 측면	인지	집중력, 주의력, 인지능력 저하
	기억	기억력 저하

이와 같이 노년층은 노화로 인해 키오스크 사용 시 인지 오류, 기억 오류, 조작 오류 등이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원활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노년층의 인지 오류, 기억 오류, 조작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유재경 외, 2019).

발생이유	오류 화면	사용자입력	pain points
인지 오류	추천 메뉴	햄버거 선택	햄버거 종류 선택 방법 예상 어려움
	추가 세트 구성품	음료 선택	제공된 콜라와 아메리카노 이미지가 비슷하여 헷갈림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 영역 반복 클릭	필드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입력 가능한 상태인지 인지 못함
기억오류	(쿠폰사용) 결제 방법	결제 취소	메뉴 선택 시 쿠폰 금액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최종단계에서 예산 초과 알림
조작오류	시간초과	-	조작 시간 초과하여 첫 화면으로 복귀

18) 위의 글

즉, 노년층의 신체적 노화가 인지 오류, 기억 오류, 조작 오류를 야기하며 이는 노년층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할 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된다.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 향상,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정보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이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일 외, 2020).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즉 디지털 소외를 겪는 노년층은 단순히 주문상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 우울, 삶의 만족도 저하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서 배제된다. 이에 박창희 · 장석준은 디지털 소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⁹⁾ 디지털 소외로 인한 사회적 장애 및 소외의 심각성은 단순한 불평등 요인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불평등 요소와 연계하여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순환적 악순환의 고리를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소외감과 집단 간 위화감이라는 사회심리적 수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기에 해소와 극복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유리는 “서울 송파구에서는 ‘2019 송파구 스마트 정보화 제전’ 행사를 개최하여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는 무인주문결제시스템 체험부스를 만들어 중장년층을 위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사 및 홍보를 통하여 노년층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²⁰⁾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노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년층을 고려한 별도의 키오스크를 제작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유재경 · 김재경 · 홍소현 · 허정윤이 제시한 다음의 사안²¹⁾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노년층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의 어려움을 줄여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19) 박창희 · 장석준, 「노년층 스마트 미디어와 디지털 복지」, 『언론학연구』 제17권 4호, 부산울산경남 언론학회, 2013, 79-105쪽

20) 김유리, 「무인주문결제시스템 소비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산회계연구』 제17권 2호, 한국전산회계학회, 2019, 57-79쪽

21) 유재경 · 김재경 · 홍소현 · 허정윤, 위의 글

구분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개선 방법
프로세스	키오스크에 다가가기 전, 메뉴판 제공
	노년층 사용자용 프로세스 제공
	메뉴 선택 시, 사용자 인지를 위한 단계 추가
	한 화면에서 적은 수의 메뉴 제시
	한 화면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고 적은 정보를 담은 화면으로 프로세스 전환
	노년층 사용자 선택 시 시간초과 기능 제거
인터페이스	영문 상용 시 국문 병행 표기
	폰트 사이즈 확대
	한 문단에 적은 적보를 집중적으로 제공
	다음 단계로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버튼에 대해 깜빡임 같은 인터랙션을 이용한 어포던스 제공
	시각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최상단, 최하단이 아닌 중앙부에 콘텐츠 제공
시스템	현금 결제 기능 추가
심리	노년층을 위한 별도 키오스크 유동적 운영

무인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무인주문 키오스크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디지털의 발달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집단은 없는 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무인서비스의 확대가 야기한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국가나 정부, 지역자치단체 등은 노년층 복지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년층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박창희 · 장석준, 2013). 이러한 사회적 배려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소외의 해결책으로 작용하여 사회집단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복지 사회로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명일 · 김영선 · 엄사랑,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23권 1호, 한국지역정보학회, 2020, 51-74쪽

김유리, 「무인주문결제시스템 소비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산회계연구』 제17권 2호, 한국전산회계학회, 2019, 57-79쪽

박창희 · 장석준, 「노년층 스마트 미디어와 디지털 복지」, 『언론학연구』 제17권 4호,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3, 79-105쪽

유재경 · 김재경 · 홍소현 · 허정윤, 「무인주문 키오스크의 고령친화적 사용자경험 개선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2019, 172-173쪽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법학과 김수진

한 학기동안 ‘인문사회 글쓰기’라는 수업을 수강하며 글쓰기에 대한 기본을 배우고 여러 차례 다양한 글들을 작성하며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입시논술을 준비했던 터라 글을 써본 경험이 적게나마 있어서 글을 쓰는 데에 두려움은 없었으나 입시를 위한 글, 즉 답이 정해진 글을 쓴 것이 대부분이기에 글쓰기에 대하여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글쓰기’ 그 자체보다 정답을 맞추는 것에 더 집중한 기술적인 측면 위주의 강의를 수강하였기에 글쓰기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수업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인문사회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면서 글쓰기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너무나 원했던 ‘글쓰기’ 그 자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일례로 한 문단의 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되는데 많고 적음의 기준을 알 수가 없었고 대부분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 여겨 알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이런 세심한 사항까지 알 수 있게 되어 글을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짜임새 있는 글의 구성과 논리적인 문단의 구성 등을 배우며 글을 쓰는데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의 전반적인 커리큘럼 역시 가장 기본적인 요약부터, 타인의 글을 평가하는 논평문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칼럼을 작성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 외에도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우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논평문이나 칼럼 등 과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 중간 학우들과 ‘ 동료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고 잘한 점이나 부족한 점 등을 조언해주는 것이었는데 여러 사람의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넓어지고 깨닫는 점도 많았습니다.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학우들의 조언들 중에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들도 있고 저의 글이 한결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러 참고사항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피드백을 해주기 위하여 글의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 자신의 글 역시도 한 번 더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과제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 순간도 물론 많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여느 집단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글을 작성할 순간이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문사회 글쓰기 수업은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보다 나의 의견을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준 수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있어서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끝으로 너무나 좋은 수업을 해주셨던 이정아 교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범죄자 조주빈에게 서사를 부여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의 괴물들”에 대해 떠올린다면 pc방 살인사건, 미성년자 렌터카 도난사건 등 엽기적인 범죄를 행사한 가해자들을 지칭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올해 초 대중들의 지탄을 받은 N번방 사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 하반기부터 2020 3월까지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악용해 발생한 성 착취 사건이다. 범죄는 대부분 트위터로 일탈계를 운영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들은 그들의 신상을 빌미로 피해자들에 대한 엽기행각을 일삼았다.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의 그릇된 성에 대한 사고와 성 착취 영상물 공급자의 절대적인 권력으로부터 기인한다.

“조주빈은 왜 악마가 되었는가.”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쏟아져 나온 기사들의 제목이다. N번방 사건 초기, 미디어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점과 가해자들의 잔인한 성 유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자체에 집중하던 초반과 달리 미디어는 점점 “조주빈”이라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해 그의 서사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조주빈의 신상을 최초로 보도한 SBS는 대학교에서 학보사로 활동하며 장학금을 타던 그의 학창시절에 대해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던 25세 청년의 이중성에 대해 보도했다.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SBS와 조선일보 모두 그의 잔인한 범죄행각보다는 선량해 보이던 청년의 두 얼굴을 강조했다.

조주빈의 서사에 대한 보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많은 누리꾼들의 호응을 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조주빈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교우관계에 대한 보도를 진행했으며 “악마”라는 칭호를 통해 가해자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영화 “쏘우”의 직쏘 캐릭터와 “악마 Q”라는 칭호를 통해 조주빈을 악마화했다.²²⁾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박사님 제발 영상 지워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며 직쏘 Q에게 무릎을 꿇는 피해자의 모습을 가상으로 연출해 필요 이상의 재연 영상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 N번방을 “가해자들에게도 고통을 남긴 사건”으로 정의 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²³⁾ 이처럼 악마라는 칭호와 가해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보도는 조주빈을 공포의 존재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

윤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조주빈 한 명의 악마화는 이 사람만 제거되면 우리 사회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범죄에 동조한 수많은 남성 관전자들을 통해 이번 사건이 완성됐다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의 악마 프레임은 조주빈에게 형량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22) 안해준, 「‘조주빈은 조커가 아닙니다.’ 미디어가 만드는 위험한 서사」, 『THE PR 뉴스』, 2020.04.03.

23) 박고은, 「조주빈 서사에만 ‘과몰입’, 누가 피해자 지우나」, 『노컷뉴스』, 2020.03.25

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본인을 악마라고 칭한 것은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²⁴⁾ 나는 이와 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디어에서 다루는 조주빈의 불우한 가정환경은 그가 ‘범죄자’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의 서사를 부여한다.²⁵⁾ 이는 대중들에게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는 2차 가해이다. 나는 범죄자의 서사는 대중들에게 불필요한 가십거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디어는 스스로가 대중들에게 사실을 전달한다는 명목 하에 2차 가해를 행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일까? 미디어는 대중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사건과 국민들을 연결 짓는 고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조주빈의 인생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범죄자의 처벌방안과 국가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적 보도만이 재범을 막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대중들이 범죄 그 자체를 바라보기 위해 미디어는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기보다 투명하게 사건 본질에 대한 보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4) 박고은, 앞의 글

25) 이승현, 「우리는 범죄자의 서사가 궁금하지 않다」, 『Art, Culture, Education News』, 2020.07.06.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유럽어문학과 최윤서

인문사회 글쓰기 수업은 20명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글쓰기 강좌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수업이다. 나는 한 학기 동안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에서 각주, 인용법 등 기본적인 글쓰기 윤리에 대해 배웠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 글을 썼다. 인문사회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글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으며 매주 있는 글쓰기 과제를 통해 자신의 글을 되돌아보며 발전할 수 있었다.

이번 인문사회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피드백 부문이다. 총 두 편의 글을 썼고, 교수님께서 학생 한명 한명의 글을 읽고 꼼꼼히 첨삭해주셨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교수님과 일대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알기 쉬웠다. 또한 같은 조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여러 시점을 참고하여 글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언론의 악순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해결해야 할 주체는 언론사뿐인가?

최근 가족들의 추억을 영상으로 남기며 팬들과 소통하던 유튜버 부부의 둘째 아이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구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부부는 SNS에 슬픈 개인사와 함께 '기사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포털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왔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넘기기에는 너무 불편했고, 지금까지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들을 수도 없이 봐왔기에 지쳤다. 요즘 유명인의 SNS에는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글을 흔히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사화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 거부에 일부 대중들의 비판도 존재한다고 한다. 인기를 얻고 싶을 때는 관심을 원하지만 편의에 따라 무관심을 원하기 때문이다.²⁶⁾ 그렇다면 기자들은 왜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기사를 쓰게 되었을까?

기자들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국민들에게 사건을 알리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기에 기사를 쓰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중들도 유명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를 보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이러한 기자들을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부르며 기레기들이 판을 친다고 말한다. 또한, 요즘은 SNS가 활성화되어 유명인의 개인사가 궁금한 대중들은 직접 그 SNS에 들어가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보도를 거부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채 알권리만을 내세워 기사화할 권리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이 주장하는 알권리는 무분별하게 기사를 쓰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지 그 이면에는 조회수가 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에 따르면, 스마트미디어시대에 대중들은 신문보다는 뉴스를 많이 보고, 뉴스를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포털사이트로 뉴스를 보는 독자들 비중은 무려 77%에 달하는 반면,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사를 보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고 한다.²⁷⁾ 즉, 국내 언론사들은 포털사이트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는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뉴스를 제공받아 링크로 뉴스에 연결되도록 한다. 언론사들은 대중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어떻게든 읽게끔 하기 위해 품이 떨어져도 조회수는 많이 올 수 있는 실검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은 인링크 시스템을

26)조성미, 인플루언서는 '보도거부권' 없나요?, the pr news, 2020.06.04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24>, 2020.06.30

27)김선호, 김위근, 박아란, 양정애,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p.15

이용하고 있다. 네이버를 통해 보는 기사는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사이트 내부 조회수(인링크)로 잡힌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나마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게 ‘실시간검색어’(이하 실검)를 통한 조회수 올리기이다. pc에서 실검을 누르면, 기사 검색 결과가 나오고, 제목을 누르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이는 곧 조회수로 잡힌다. 따라서 현재 언론사들은 실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언론사의 온라인부 10년 차 기자는 “품을 많이 들인 좋은 기사가 읽혀야 하는데, 연예인 SNS를 보고 쓴 1분짜리 기사보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으니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²⁸⁾ 여기서 조회를 하는 주체는 대중들이다. 대중들도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비난은 하지만, 자극적인 기사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에 눈길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대중들이 유명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써놓은 기사에 더 눈길을 주니 수익을 위해서 이러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에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중들은 피로감에 지친다. 또한 대부분의 대중들이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보다는 연예 뉴스에 더 관심을 갖고, 한 분야의 뉴스만 찾아보는 것도 한 몫한다.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먼저 언론사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인링크’ 대신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하여 기사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게 해야 한다. 아웃링크 방식을 이용하면 인링크 방식보다 로딩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조회수를 위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나 자극적인 기사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포털사이트가 뉴스 기사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기자들이 유명인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보도를 거부했음에도 기사를 썼을 시, 포털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경고 혹은 벌점을 줘야 한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통해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포털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고 시행하도록 맡기되, 잘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들은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기사를 찾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봐야 한다.

언론은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감시자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토론장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현재 언론은 이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련해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만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다. 또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만 한다면 악순환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포털사이트에 종속된 언론사,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자들, 자극적인 기사에 눈길 주는 대중들은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리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모두 언론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해결에 힘쓴다면, 우리나라 언론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28)남형도, [MT리포트] 자극적 기사가 키운 악플, 한국포털의 한계, 머니투데이, 2019.10.1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1620073143768>, 2020.06.30.

<참고문헌>

- 김선호, 김위근, 박아란, 양정애,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p.15
- 조화순, 「포털 뉴스 유통 현황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2011년-5
- 조성미, 인플루언서는 ‘보도거부권’ 없나요?, the pr news, 2020.06.04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24>, 2020.06.30.
- 남형도, [MT리포트] 자극적 기사가 키운 악플, 한국포털의 한계, 머니투데이, 2019.10.1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1620073143768>, 2020.06.30.
- 심재석, [심재석의 입장] 언론사들의 비양심적인 아웃링크 주장, 바이라인 네트워크, 2018.04.26., <https://byline.network/2018/04/27-13/>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법학과 최하영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의미있는 수업을 만들어주신 교수님과 글을 읽고 정성껏 피드백해준 조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인문사회글쓰기'는 교수님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의견을 나누고 능동적으로 '나'와 '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만의 글을 다듬어가는 수업이었다. 칼럼을 쓰기 전에 글의 소재를 생각해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최종주제를 정하였다.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기사와 같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다양한 칼럼의 구조 중에서 어떤 구조가 독자들의 흥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구조를 짜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글을 다듬고 다듬어 하나의 칼럼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칼럼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사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사를 읽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왜 이렇게 쓰는거야?'라고 불만이 있었지만 왜 이런 기사들이 끊이지 않는지 찾아보려는 커녕 비난만 하고 끝났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기레기'라고 불리는 기자들의 이야기와 언론사의 유통구조, 공인들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점 등을 다방면으로 들여다보며 답답함을 풀 수 있었다. 이 글을 독자들이 읽고 언론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했다. 기사에 보이는 것을 모두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민들이 나날이 늘어갈길 기대해본다.

언어 감수성과 공감능력에 대한 고찰

1. 서론

21세기 인류는 4차 산업혁명²⁹⁾의 문턱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은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의료, 교육, 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인간의 “공감능력”이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환경오염, 자원고갈, 전쟁 등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를 극복할 동력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회는 추락하기 쉽다. 공감이 결핍된 사회는 폭력이 난무하고 타인의 아픔을 조롱하며 추악해질 뿐이다.

앞서 설명한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어느 때보다도 공감능력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나의 언어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관찰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나 자신과 설문에 참여한 20여 명의 지인이고, 조사 방법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였다. 또한, 공감 능력(EQ)테스트, 이코그램(ego gram) 등의 진단지를 활용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본론

1) 호프만의 공감이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감능력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감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중 호프만은 인간이 가지는 공감적 정서의 역할을 가장 정교하게 묘사한 학자이다. 그는 인간의 공감적 정서는 타인을 위한 광채로써,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접착제이며,³⁰⁾ 상상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신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³¹⁾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는 인간의 공감적 정서가 타고난 것임을 전제로 하며, 이는 곧 인간의 내면에 타인을 도우려는 이타성이 존재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호프만의 이타적 속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공감적 정서는 도덕적 사회화의 출발을 위한 전초이며,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사회화에 대한 이타적인 호소의 생물학적인 준비단계이고 수용성이라 할 수 있다.

호프만은 공감을 ‘나 자신보다는 다른 어떤 사람의 상황에 더 적합한 대리적인 정서의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타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정서와 감정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29) 4차 산업혁명 :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된다.

30) M. L. Hoffma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6.

31) A.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UK Clarendon, 1965, p.261.

을 의미한다. 그에게 있어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능력'의 관점에서 해석된다.

2) 공감과 동정의 비교 - 위스페(L. wispe)의 관점으로

우리는 종종 공감(Empathy)과 동정(Sympathy)을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하곤 한다. 물론 공감과 동정은 모두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두 개념 모두 타인에 대한 정서가 수반된 반응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스페의 주장에 따르면 동정은 함께 함에 관심을 두며, 자의식이 증대되기보다는 감소한다. 반면, 공감 속에서 자아는 이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며,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공감의 목적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동정의 목적은 타인의 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공감은 '앞'의 방식이며 동정은 '관계'의 방식이다.

3) 언어 감수성이란

공감능력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감수성'이다. 감수성이란 외부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뜻하며, 어떤 변수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언어 감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언어 감수성은 언어에 민감한 정도를 뜻한다. 언어가 관계의 장임을 고려한다면, 언어 감수성은 언어적 '표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관계 규정'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하다. 언어 감수성은 언어 표현에 대한 민감도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인간관계를 구성하고 작동시켜 온 인식체계에 반응하고 질문할 수 있는 감각"을 말한다. (김수연, 2019)

4) 나의 표현능력과 소통방식 점검하기

앞서 공감능력과 언어 감수성의 정의를 살펴보고, 관련된 이론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제 다양한 진단지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언어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점검해보려 한다.

결과를 논하기 전 필자의 표현능력을 살펴보았다. 언어적 표현을 점검하고자 평소 사용하는 메신저와 SNS에서 줄임말과 강조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원인은 보편적이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소통방식에서는 타인에게 공감해주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배적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타적 행동³²⁾보다 도움 행동³³⁾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것을 근거로 필자는 본인의 공감능력이 평균 혹은 그 이하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먼저, 공감능력(EQ) 테스트는 '공감 제로'의 저자 사이먼 배런코언(Simon Baron-Cohen)³⁴⁾이 개발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지들이 공감의 주요한 두 구성요소(인식과 반응)를 잘 반영하지 못한 탓에 개개인의 공감 능력을 정확히 측정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고 직접 질문 문항을 세밀하게 설계한 것이다. 나의 공감능력 테스트 결과는 44점으로, 남성 평균 42점과 여성 평균 47점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32) 이타적 행동 : 행위자가 그 행동에 따를 이익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을 돕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때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돕는 행동. (박지선, 「친사회적 행동」, 『심리학 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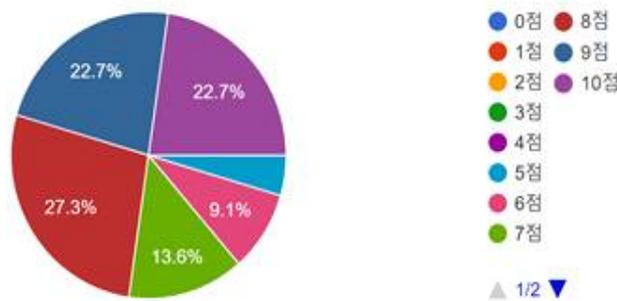
33) 도움 행동 : 돕는 행위에 따른 이익을 향한 계산적인 행동. (박지선, 「친사회적 행동」, 『심리학 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2014.)

34) 사이먼 배런코언(Simon Baron-Cohen) : 영국의 임상심리학자 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발달 사이코패스학 교수. 자폐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였다. (홍승효, 『공감 제로』, 사이언스북스, 2013.)

다음으로 ego gram(에고그램)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에릭 번(Erick Berne)이 1957년에 개발한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TA)을 바탕으로 듀세이가 1972년에 만든 심리검사 도구이다. 에고그램을 통해 자신의 자아 상태를 분석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나의 성격유형을 확인함과 동시에 확장/개발하고자 하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의 경우 ABABB 유형으로, 결과지에서는 ‘큰 조직 속에서 출세를 노리는 타입’이라고 설명한다. 권위와 권력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 이를 획득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이성과 지성을 총동원하는 타입이다.

마지막으로, 22명의 지인(고등학교 친구)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앞서 진행한 테스트와는 별개로 주변인들이 느끼는 나의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음을 밝힌다. 0~10점으로 나누어 11개의 선지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8점이 27.3%(6명)로 가장 많았고, 9점과 10점이 각각 22.7%(5명), 7점이 13.6%(3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점수는 8.2점으로 나타났다.

5. 질문자(허가율)의 평소 공감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10점,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감능력이 풍부한 것)
응답 22개



[그림 1] 나의 공감 능력 점수

3. 결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테스트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였고, 지인이 생각하는 필자의 공감 능력 점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감능력(EQ) 테스트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필자는 보통 수준의 감성지수로 적절히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적절히 타인의 감정도 읽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이나 타인도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이다.

ego gram(에고그램) 테스트는 ABABB 유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 합리적, 이성적, 능률적, 객관적, 현실적이며 의사결정 시 사실적 정보와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성격이 강해진다. 극단적으로 높을 때는 타인에 대한 공감,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이 되어 남에게 차가운 느낌을 준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였다. 필자는 평균 점수가 5~6점대로 형성되리라 예측하였다. 스스로가 타인의 슬픔이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흔히 말해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보다 높은 평균값이 나왔고, 5점 미만의 응답은 없었다. 추측해보건대 필자가 타인의 긍정적인 정서에 공감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응답이 아닐까 싶다. 이를테면 환영, 축하, 격려와 같은 감정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기란 쉽지 않다. 타인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는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내기에 바쁘니 말이다. 조사를 통해 나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공감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계획할 때임을 깨닫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공감이 천부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곧 노력을 통해 공감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 나는 그 해답을 책 속에서 찾아보려 한다. 이론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 서적이 아니라, 에세이와 같이 개인의 삶 속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을 풀어낸 서적을 중심으로 말이다. 꾸준히 독서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안다.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 10분씩 독서를 함으로써 공감능력과 감수성이 쌓여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 김수연, 「언어 감수성과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 - 『우리말과 글쓰기』, 『사고와 표현』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제47호』, 이화어문학회, 2019, 177-208쪽.
- 박지희, 「공감(empathy)과 동정(sympathy) - 두 개념에 대한 비교 고찰」, 『수사학 제24집』, 한국수사학회, 2015, 91-116쪽.
- 소병일, 「공감과 공감의 윤리적 확장에 관하여 - 흄과 막스 셸러를 중심으로」, 『哲學 제118집』, 한국철학회, 2014, 197-225쪽.
- 이종형, 「호프만의 공감에 기초를 둔 정의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9권0호』, 한국윤리교육학회, 2006, 177-199쪽.
- A.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UK Clarendon, 1965, p.261.
- M. L. Hoffma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6.
- “공감능력 설문지”, (<https://forms.gle/rXMNV3ei4Mh7Ypff6>)
- “공감능력 테스트”, 『사이언스북스』 (<http://sciencebooks.minumsa.com/eq-test/>)
- “에고그램 성격유형 테스트”, (<https://egogramtest.kr/>)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은상 운동재활복지학과 허가을

필자는 평소 독서를 즐기는 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글로 써서 기록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데에는 서툴렀다. ‘글쓰기’라 하면 작가와 같은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문화라고 생각한 탓인 걸까? 학창 시절에도 글쓰기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면 덜컥 겁을 먹고는 하였는데,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글쓰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메디컬캠퍼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보건글쓰기’를 수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료보건계열 재학생에게 글쓰기 수업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강의를 끝마친 지금 시점에서 나의 대답은 ‘YES’이다. 글쓰기 수업은 ‘글을 쓰는 것’ 이상의 깨달음을 주었다.

수업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교수님의 이론 강의, 글쓰기 과제, 조별 토론 및 그룹 프로젝트로 구성되어있다. 교수님께서 다양한 사례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2시간의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관찰의 글쓰기 과제를 통해 나 자신의 언어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점을 꼽자면 교수님의 피드백이 아닐까 싶다. 교수님께서서는 과제 제출 후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설명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또한, 윤리적 글쓰기 강의에서 배운 ‘참고 문헌 표기법’은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었다.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열정 넘치는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매주 진행되는 조별 토론에서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한다.

위안부, 해결되어야 할 문제

목차

서론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

일본의 잘못 시인이 없어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다.

본론

위안부에 대한 협상은 무효였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역사 시정이 긴급하다.

결론

일본은 빠른 시일 내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이후 올바른 역사 시정 역시 필요하다.

서론

올해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광복 75주년을 맞았다.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나날이 발전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반짝이는 한 편의 뒤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두운 부분도 있다. 바로 ‘위안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문제이다. 1991년 8월 14일故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이 증언 이전엔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언하기 꺼려했던 이유가 바로 사회적 낙인이다. 하지만 첫 공개 증언 이후 용기를 얻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잇따라 증언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서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피해 국가들이 일본의 범죄 사실과 법적 책임 인정,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일본은 범죄를 인정하지도 배상하지도 않고 사실을 부정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미루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 때문에 위안부에 대한 왜곡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이지만 소수의 사람들도 사실은 위안부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하기 시작했다. 또 일본의 오키노 의원은 “위안부 강제 동원 안 했다”라는 망언까지 하며 일본 국민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후 위안부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긴 했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이 합의 이후로 봉인될 것을 요구하며 진실된 사과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여러 번 사과하는 것을 바란 적 없다. 오직 진실되고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사과만이 그들의 아픔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속 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역사를 바로잡을 산 증인인 위안부들이 없는 위안부 운동을 해야 할 상황이 오고 만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론

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2015년 12월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한일 양국의 가장 민감한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하나도 존중되지 않은 정부 중심의 협상이었다. 또한 합의의 내용도 일본 측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논리를 고수하였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더 늘릴 것이니 이와 함께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문제 제기를 봉인하라고 요구하였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 달리 일본의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되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의 기시다 외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했고, 양국 정상들은 이 합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한국 시민 사회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국내 여론에 파장을 미친 것이다.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안이정 대표도 “소녀상은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라 마라 할 수 없다고 수 차례 얘기해 놓고 돌연 정부가 태도를 바꿨다”며 “10억 엔을 받는 대신 소녀상 문제를 덮고 가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 했지 이외에 강제 징용과 같은 일본 식민지 피해자들의 문제는 미해결이었던 것이다. 모호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미해결된 문제와 박근혜 정부의 합의는 시민 사회에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후 강제 징용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본격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 포스(위안부 TF)’를 만들어 이 합의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진행했고,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합의는 실질적인 파기상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담화를 꼭 다시 해야 할 것이며 이번엔 정부 중심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의 사례를 보고서도 정부 중심의 합의를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고 실수로 그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의 오키노 의원은 위안부를 강제동원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니라 상행위를 위해 스스로 참가한 것이며 모집과정에서 국가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유명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희대의 망언이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발언이었다. 한 명의 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아닌 일본군이 제도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들은 이미 발견되었다.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에는 위안부 모집 과정에 군과 지방경찰이 참여하였고 민간업자들을 지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안소 시설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할 것을 계속 강조했고 위안소 시설을 어느 지역에 몇 개 설치할지에 대해서 발언한 것도 나온다. 이외에도 많은 문서들이 일본군이 위안부와 관련해 조직적인 개입을 해왔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국가에서 자행하여 위안부라는 성노예 제도를 입안하고, 여성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관리한 국가범죄를 어떻게 여성에 의지에 의한 상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 연행했던 것은 이미 증언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최일례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물동이를 이고 동네 우물로 나가는 중 갑자기 누가 뒤에서 어깨를 낚아챘고 트럭으로 내던져져서 끌려 갔다고 한다. 또 여복실 할머니에 증언에 따르면 집에 갑자기 일본인 순사와 군인들 여러 명이 들어와서는 자신을 강제로 트럭에 실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고, 카라멜을 준다거나 쌀밥을 먹여준다며 유괴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

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일에 군대, 행정직원, 경찰 등 모두가 총동원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위안부 제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행위였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합의 이후로 일본의 아베는 “한국에게 위안부와 관련하여 더는 사죄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약속을 어기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근데 17일 후 일본의 사쿠라다 의원이 망언을 터트린다.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라는 망언을 하며 피해자들은 일본 국내법상 합법적인 매춘부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서 아베 총리 역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가 안보상의 이유였으며 자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함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태도이다. 또한 합의 이후로 위안부 문제를 봉인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과한다고 하면서 일본은 입장을 뒤집어 다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고 자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걱정된다. 위안부가 이대로 직업 매춘부로 잊히는 건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또 끊임없이 기록하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수해 주어야 한다. 일본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발언이 아닌 진짜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도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이끌어내며 후세에게 진실된 역사를 알리려고 노력한다. 우리도 그분들의 증언이 마냥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길이 보존되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역사가 아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이 가슴 깊이 반성하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문제이다.

결론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위안부에 대한 역사 수업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들이닥친 문제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겪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역사를 잘 가르쳐 훗날 우리에게 똑같은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 교육이다. 근데 그래야 할 역사 교육에 중심이 되는 역사가 범죄자의 잘못 부인으로 인해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위안부에 대해 배울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이 하루 빨리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야 한다. 우리가 식민지 시절 참담했던 사건들 중 성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흉악한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일을 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기억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절대 잊혀서는 안 되는 역사이며 또 다시 그런 비인간적인 대대적인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머릿속에 새기고 다시 새겨야 한다. 일본은 지금 살아있는 피해자들이 그간 후천적 장애를 앓게 된 것과 귀국 후 남들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음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위안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선조가 감행했던 범죄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일본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국 국민들에게 이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참고 문헌>>

고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며」, 『실천문학』 제 61호, 2001, 317-334쪽.

신옥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한일 관계의 양면 안보 딜레마」, 『아시아리뷰』 제9호, 2019, 151-177쪽.

이재호, 「아베, 한국, 약속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끝난다」, 『프레시안뉴스』, 2015. 12. 30.

윤미향,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일본군 '위안부」, 『황해문화』 50호, 2006, 99-112쪽.

조준형, 「日집권당 사쿠라다 의원 "위안부는 매춘부"망언」, 『연합뉴스』, 2016. 1. 14.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남주

제가 들었던 수업은 인문사회 글쓰기입니다. 대학교에 오면 글 쓸 일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평소에 글을 쓸 줄 몰라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양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브레인 스토밍, 개요짜기, 본문 구성 등을 직접 해보면서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수업마다 자신이 적은 것들을 발표하여 언변 능력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사이버 수업이라 몰입도가 떨어질 것을 예상했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게 불시에 질문을 하고 발표를 시키시는 것으로 사이버 강의가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깨주셨습니다. 또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 자신만의 글 한 편을 완성하도록 지도해 주셔서 처음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글을 써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글을 보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고 쓰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이었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는 사회가 되도록

며칠 전, 한 성 소수자가 이태원 일대의 클럽에 다니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손실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클럽에 간 성 소수자 한 명이 아니라, 성 소수자라는 집단 전체를 조롱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은 '징그러운 걸 징그럽다고 할 수 없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행하는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 사회가 자신과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대놓고 표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사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성 지향성,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만든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무분별한 혐오 표현과 차별 행위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들과 동성애 혐오자들은 '성 지향성' 부분에 태클을 걸면서 본 법안의 제정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의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는 건 끔찍하다는 의견도 제 몫을 톡톡히 했다. 덕분에 세 차례에 걸친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13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었던 시간 동안 성 소수자들은 쏟아져 내리는 차별의 눈초리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 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심지어는 동성 커플의 결혼식장에 인분을 투척하는 사람도 있었다. 퀴어문화축제의 경우, 개인적인 혐오감이 약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까지 일으킬 수 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혐오 세력들은 '축제'여야 할 장소에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 소수자들의 정신을 교정하려 애썼다. 최근 진행된 온라인 퀴어문화축제에서마저도 혐오 세력들의 대대적인 테러가 진행되었으니 상황은 알 만하다. 하지만 슬프게도, 사회는 아직 비주류인 성 소수자들의 '인권'보다는 주류의 '표현할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경찰들은 폭력을 행사한 혐오 세력 대신 폭력을 당한 성 소수자들에게 진압봉을 들이대고,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동성애 반대 공약을 펼치니 말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동성애 혐오 국가'가 된 배경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들의 반 동성애적 교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믿어왔던 유교 사상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유교 사상에서 혼인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되었다. 서로 대립하는 '음'과 '양', 즉 여자와 남자의 결합만이 온전한 혼인 관계라고 여겨진 것이다. 이런 유교 사회에서 '음'과 '음', 혹은 '양'과 '양'의 결합인 동성애는

크나큰 죄악으로 치부되었을 테다. 실제로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은 동성애를 행한 자에게 곤장 70대의 형벌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세종의 재위 기간으로부터 6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혼인 관계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되며,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착된 유교 사상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안대의 역할을 한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싫고 인정할 수 없다는 ‘개인의 기호와 사상’이 무기가 되어 성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체, 성별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 하는 일에 왜 개인의 권리까지 갇아먹는 희생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식의 논리는 인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양상을 보였다. 외국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딛고 있을 때, 비슷한 시기의 대한민국에서는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 그리고 하리수 씨의 성전환 수술 소식에 우스꽝스러운 조롱과 비난을 보내고 있었다. 2001년 네덜란드로부터 시작된 이 법제화의 물결은 벨기에,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아시아 국가인 대만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닿지 않은 모양이다.

동성혼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국가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동성 부모 차별 금지를 취지로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모든 서류에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부모 1’, ‘부모 2’의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 텍사스주의 법원에서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성교육을 진행할 시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범성애 등 다양한 사랑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치기도 하며, 이러한 성교육을 부모가 개인적인 신념 등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약자인 성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한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처럼, 대한민국에도 관련 법안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혐오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속부터 끓어오르던 혐오를 내뿜는 순간 이는 약자를 향한 혐오범죄가 된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이런 혐오범죄에서 점점 무뎌지는, 다시 말해서 혐오를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사회가 되는 듯하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는 성 소수자 말고도 다양한 약자들이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본래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의 다양한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런데 이런 약자들의 존재는 깡그리 무시하고 ‘성 지향성’이라는 조건 하나에만 눈이 멀어, 성 소수자 혐오에만 눈이 멀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니 이 무슨 억지란 말인가. 약자에 대한 혐오 표출을 막고 이들의 인권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혐오를 혐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문헌>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에드윈 캐머런, 『헌법의 약속』, 김지혜 옮김, 후마니타스, 2017.

문경란, 「차별금지법 제정, 미루는 게 차별」, 『경향비즈』, 2018. 01. 09,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092048025, 2020. 06. 26

pmg 지식엔진연구소, 「동성결혼 허용」,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7. 06. 2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7380&cid=43667&categoryId=43667>, 2020.
06.26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사회복지학과 김민진

글쓰기는 때로는 옅지른 물과도 같습니다. 한 번 쏟아지고 나면 주워 담기 힘든 물처럼, 한 번 제출하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그 글쓰기가 학교의 성적을 가르는 과제라면, 제출을 취소하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과제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오타와 비문을 발견하는 일은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공감하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인문사회글쓰기>는 물을 쏟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목이라기보단, 최대한 맑고 정돈된 물을 쏟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글쓰기 윤리를 배우고, 글을 쓰는 도중에 사용할 문법과 문단 구조를 배우고, 다양한 글 작성을 통해 직접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수차례의 퇴고도 거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엉터리였던 처음의 글에서 불순물은 썩 사라지고 맑은 물만 남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런 물이라면 쏟아도 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정화된 물을 탈탈 쏟아내고 나면 더 이상의 후회도, 미련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듯 본 과목은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물을 쏟을 힘, 그리고 움츠러들지 않을 정도로 맑은 글을 쓸 힘을 제게 길러준 듯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변정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 마음속에 생겨난 정화조가, 오래도록 맑고 정돈된 글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원의 폐지 아닌 개혁, 새로운 시작점

몇 년 전 사육사가 실수로 열어두었던 문을 통해 동물원을 탈출했던 퓨마를 기억하는가? 기억한다면, 그 퓨마는 수색대의 마취 총에 맞고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 끝내 엽총으로 사살 당했다는 사실도 기억날 것이다. 인간에 의해 비좁은 철장 안에 평생을 갇혀 살다가, 인간의 실수로 철장을 나가 또다시 인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퓨마의 생은, 철저히 인간만을 위한 삶이었다. 심지어 퓨마는 야생동물 법으로 보호받는 국제 멸종 위기종이었다. 불과 2년 전의 우리나라의 일이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현재의 동물원은 어디쯤 와있을까. 멸종 위기종을 위협하다는 이유로 처참히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2년 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아니, 분명 다를 것이라 믿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건 이후 동물원에 대한 법이 점차 개정됐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지난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 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 수족관 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한국 동물원의 가장 큰 문제로 열악한 관람 시설을 꼽았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한국의 동물원은 감옥형 전시장에서 동물의 신체를 관찰하는 19세기 동물원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무려 100~20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다.

열악한 관람 시설뿐만 아니라, 동물원 동물에게는 각종에 맞는 복지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동물원에는 전혀 기준이 없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 청금강앵무는 짧은 사육장에서 무동력 비행 행동 등의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다마사슴을 사육하는 한 동물원은 수컷끼리의 싸움으로 인한 부상을 막기 위해 사슴의 뿔을 잘랐다. 특히 번식기 수컷 사슴의 뿔을 자르는 사례는 중국의 몇몇 동물원 외에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어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타국보다 상당히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보고 있다면, '동물원을 아예 없애고,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동물들을 좁은 곳에 가두고,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동물원을 폐지하는 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동물 복지에 관해 관심을 둘수록, 실제적인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폐지'는 조금은 조급하고 허황한 목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현재 지구에는 전 세계 수백만 마리 동물원 동물들이 다시 돌아갈 자연이 없다. 예시로 한때 우리나라에서 주로 서식하며 '한국 표범'이라고 불렸던 아무르 표범이 있다. 밀렵행위뿐만 아니라 주 서식지에 산림 벌채까지 진행하면서, 우리의 한국 표범은 살아갈 곳을 잃었고 전 세계 동물원에 약 200여 마리, 야생에는 70여 마리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파괴했기에, 야생에는 더는 동물들의 적합한 서식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미 몇 세대 간 사람의 손에 사육당한 동물들은 야생에 다시 적응하기가 어렵다. 평생 좁은 우리에 갇혀 살던 동물원의 동물들은 갑작스러운 방임에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처럼 아무런 대안, 적응을 돕는 시스템도 없는 상태로 동물원을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동물 학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속하여 온 동물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동물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동력은 철저히 인간의 이기심, 비인간성에 의한다. 동물원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아직 동물원을 폐지한 국가가 단 하나도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거의 동물원이 아닌, 현대의 동물원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면 결론에 도달하기 쉬울 것이다. 과거의 동물원의 역할은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동물들을 '전시'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 가둬 놓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동물 교육은 정보통신 발달로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동물들이 움직이고, 사는 것을 보고 싶다면 AR 동물원, 다큐멘터리 등 수많은 자료와 수단이 있다.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는 동물원이 '교육 목적'이 아닌 이 시점에서, 동물원의 역할이란 최소한의 규모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서식지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규모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의 수이다. 멸종 위기종이 아닌 동물들까지 고통을 주며 가두어 놓는 것은 결코 윤리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유 박탈이 아닌, 종 보호를 위한 멸종 위기종 위주의 동물원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물원이 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 동물원에서는 사람이 동물을 구경한다기보다는, 동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넓고 방대하다. 자연 그대로를 옮겨왔고, 우리 사이로 좁은 관람객 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쇠창살이나 유리창이 아닌 깊은 도랑이나 낮은 벽이 설치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뷔르거 동물원에서도 동물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울음소리는 들리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 동물들이 더 많고, 밀림을 거대한 온실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형태다. 사람들이 동물을 상품 보듯이 구경하고, 동물들은 그 시선과 유리창에 갇혀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원과 상반되지 않는가? 이런 사례를 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인지한다면, 앞으로는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게 동물원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규제 및 동물원 법 개정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심각하게 동물윤리를 침해하는 나라로서,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개혁의 출발조차 불가능하다. 동물원 법을 국제적 동물복지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종별로 사육환경을 달리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법적 기준들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동물원들은 퇴출 절차를 밟도록 한다면 더더욱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수많은 사람의 시선에 고통받는 비인간적인 감옥형 시설에서 벗어나, 멸종 위기 동물들이 자유롭게 질주할 수 있는 따스하고 윤리적인 동물원으로 탈바꿈된다면 느껴질 변화들이 기대되지 않는가? 그 긍정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머나먼 목표, '폐지'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실현 가능한 목표인 '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 개혁이 동물원의 정의와 역할까지 뒤바꾸며, 동물윤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1) 신소윤, 「시간이 멈춘 곳, 한국 동물원」, 『한겨레신문』, 2020.0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483665>, 2020.07.09
- (2) 최혁준, 「그럼에도 동물원을 없앨 수 없는 이유」, 『뉴스1』, 2017.01.11,
<https://www.news1.kr/articles/?2882575>, 2020.07.09
- (3) 「“동물과 야생, 그 자체가 목적인 동물원 됐으면”」, 『한겨레신문』, 2017.10.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384754>, 2020.07.09
- (4) 김기범, 「'동물원 선진국' 독일·네덜란드에 가보니… 인간을 구경하는 동물들, 행복해 보였다」, 『경향신문』, 2015.08.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162145355,
2020.07.09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경영학부(글로벌경영학) 김시현

이번 학기에 수강했던 ‘인문사회글쓰기’ 강좌는 사고력에 바탕을 둔 언어 표현을 실습하고, 의사소통 기능으로서의 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였습니다. 목표처럼 쓰기와 말하기를 모두 연습하고 교수님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는, 효과적인 실습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윤리적인 글쓰기의 예방법인 인용하고 출처 밝히기,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 어문규정, 요약하는 방법, 자기성찰과 이해, 칼럼 쓰기 등 수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는 강좌를 들으며 제 국어 능력, 특히 글쓰기 능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성찰글’과 ‘칼럼’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글도 써보았는데, 이때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성찰글의 경우, 단순히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스스로 과거를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미래를 다짐해보는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기에 뿌듯한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칼럼은 많이 접해보긴 했지만 스스로 작성해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처음이라 힘들기도 했지만 준비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미를 느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로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칼럼준비 및 초고에 대해 교수님께 단계별로 세밀한 피드백을 받은 것도 매우 유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작성했던 칼럼을 통해,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NS와 허영심

의류 대여는 패스트 패션에 반대되는 개념 혹은 비싸서 살 수 없는 옷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인식되어왔으나 ‘패션 패스(Fashionpass)’는 이와 다르게 젊은 여성들의 허영심을 공략했다. 아래는 패션 패스의 홈페이지 사진으로 “Never Instagram in the same outfit twice.”라고 적혀있다. 해석하면 인스타그램에 같은 옷차림을 두 번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패션패스의 고객 중 75%는 인플루언서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요즘 젊은이들, 특히 20대 여성들의 허영심을 통찰할 수 있다. 허영이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榮華). 또는 필요 이상의 겉치레를 의미한다.³⁵⁾ 인플루언서를 동경하고 그들의 스타일링을 따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플루언서가 예쁘거나 멋있어 보이며 자신 또한 그들만큼 우월함을 드러냄으로써 남에게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허영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사진> 패션 패스 홈페이지³⁶⁾



<사진> 리세트 칼베이로 인스타그램³⁷⁾

좌측은 리세트 칼베이로라는 인플루언서의 사진이다. 화려한 옷을 입고 휴양지로 보이는 장소에서 모델과 같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녀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약 천만 원의 빚을 졌으며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처럼 이야기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절대 두 번 올리지 않았다. 나는 거짓 속에 살았고 빛이 점점 늘어났다”고 말했다.³⁸⁾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허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많은 젊은이들이 인플루언서를 아예 직업으

35) “허영”,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ED%97%88%EC%98%81&query=%ED%97%88%EC%98%81&target=dic&query_utf=&isOnlyViewEE=, 2020.06.22.

36) <https://thefashionpass.com/>

37) <https://www.instagram.com/lisettecalv/>

38) 오홍석, “인플루언서 허영심’ 공략해 성공한 의류 대여 스타트업. 『조선일보』, 2019.03.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6/2019032601906.html, 2020.06.12.

로 삼기도 하지만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비용은 많이 들고 수입은 적다. 그들은 화려해보이지만 우리는 그 내막을 알 수 없다. 정지우 작가는 그의 책에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고 사진만 있다며 그들의 단편적인 일상, 만들어진 사진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대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삶에 눈이 먼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내심 질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미디어와 SNS에 노출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영심이 자라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 사실 나도 중학생 시절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하루에 서너장씩 올리며 팔로워를 모으곤 했다. ‘나 팔로워가 이만큼이나 있어, 나 유명인이야’라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허영심의 극치는 명예욕이다”³⁹⁾라고 주장한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듣고 내가 허영심과 열등에 가득 찬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어느 정도의 허영심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지만 우리는 이를 드러내기보다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허영의 또 다른 예시를 통해 허영심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요의 증가로 명품로고가 그려진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는데 정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9만원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 또한 사람들의 허영심을 이용한 마케팅이다. 면 마스크는 코로나 19 예방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허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는 명품 마스크를 쓸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마스크를 구매할 것이다. 이를 통해 허영심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허영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거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보다 허튼 데에 낭비하게 만든다. 심리해설자 버트런드 러셀은 허영은 행복을 망치는 심리이며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⁴⁰⁾



<그림> 글쓴이 제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 나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다. 발표하기 전에 긴장될 때나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렸다. 이러한 습관은 나를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 내가 걸으려면 자신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NO”를 외치는 것이다. 심리학자 류쉬안은 그의 책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심리학>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그 한계를 지키며 남들과의 가시적인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⁴¹⁾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해 그 이상을 요구하는 부탁이나 요구에

39) “허영심”, 『네이버 지식백과 선샤인 지식노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38527&cid=42045&categoryId=42045>, 2020.06.14.

40) 버트런드 러셀, 『행복의 정복』, 이순희 역, 사회평론, 2005.

41) 류쉬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심리학』, 임보미 역, 다연, 2019.

정확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허영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동양어문학과 김하은

우선 저의 수업을 진행해주셨던 이상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은 '소통'의 수업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과 학생이 일대일로 글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글 작성을 완료하는 데까지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피드백해주신 덕분에 만족스러운 칼럼을 작성할 수 있었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조별활동을 진행하며 조원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 또한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의 글에 대해 피드백해주는 활동을 통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교하지 못하였지만 친구를 사귄 수 있었습니다.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은 반드시 알아야하는 글의 형식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글을 접하였기 때문에 지식의 폭을 넓히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정일의 『대학교육에서 '교양'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하며 틀에 갇힌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는 과정에서 글의 전개를 파악하고 개요를 탄탄하게 작성하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완성된 글로 수상하여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18일 세계보건총회 연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 바⁴²⁾ 있다. 인도적 지원이란, 생명 구조와 고통 경감에 목표를 두는 활동으로,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⁴³⁾ 이에 입각하여 한국은 보건체계가 취약한 국가를 시작으로 마스크·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물품지원을 확대하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제백신협회(Gavi)등 국제기구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 이 연설의 골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여파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기재부의 국가 예산 축소가 이어지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을 위한 추경은 무리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반발을 감안하고서라도 국제사회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를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부분이다. 코로나19에 관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추경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로 돈이 시중에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부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40.1%로 OECD 국가 평균인 109.2%의 1/3 수준이다.⁴⁴⁾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는 한국의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 둘째로, 우리 정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과 국제사회에 기부한 분담금의 일부를 끌어 쓰기로 하였다. 일례로, 외교부 산하에서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사업 진행이 힘들어지자 봉사단·해외사무소 인력 등을 전원 귀국시키고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코이카에 배정되었던 출연금 일부를 감액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⁴⁵⁾ 사례와 같이 ODA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현 경제 상황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환원할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인간은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공존하고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박애정신에 근간을 두고 인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재난·전쟁 등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배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무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42) 김호연, 「문대통령, “보건 취약국 코로나 극복에 1억 달러 지원”」, 파이낸셜 뉴스, 2020.05.18., <https://www.fnnews.com/news/202005181835593042>

43) 이명근 외 6인,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 연구: 긴급구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P23, 『KOICA 연구보고서 2012-11-167』, 한국국제협력단, 2012.07.

44) 노경진, 『국가 부채 괜찮을까?...사상 최대 따져보니』, MBC뉴스, 2020.06.03.,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7850_32524.html

45) 김동현, 「개발원조예산 깎인 외교부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확대”」, 연합뉴스, 2020.04.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60800504?input=1195m>

1950년 한국전쟁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은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국은 식량, 의료,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받은 바 있다.⁴⁶⁾ 한국은 이러한 도움을 통해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현재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일회성 지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를 확대할 것을 지적을 받은 바 있다.⁴⁷⁾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물품지원 및 방역 경험 전수 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글로벌 공공재 개발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내 위상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 글로벌 공공재란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⁴⁸⁾를 말한다. 질병 퇴치로 인한 혜택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누린다는 점에서 공공재에 해당된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혼란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신속한 대량검사, 체계적 절차,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GPS를 활용한 동선 추적 등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으나, 이것만으로 코로나 이후 도래할 시대에서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인도적 지원의 일환인 글로벌 공공재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세계보건총회에서 긴급구호 외에도 국제백신협회(Gavi) 및 빌 앤 멜린다 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한 바 있다.⁴⁹⁾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의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구매수요가 급증했고, 한국의 방역 성공을 말미암아 마스크 및 필터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문제가 빚발치면서 관련 분야 업체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했다.⁵⁰⁾ 한국이 인도적 지원 확대 과정에서 글로벌 공공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국내 제약 및 R&D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고, 향후 보건 분야 개발협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상을 살아가며 타국으로부터 경제·외교 등 가시적인 부분 외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돕는 행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불성설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환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방역을 선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지난 5월,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우수 방역으로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2023년까지 국제 보건을 책임지게 되었다.⁵¹⁾ 이렇듯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으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46) KOICA ODA교육원,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I-Scream media, 2016, 329쪽

4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P.7, 『의결안건(제31-3호)』, 제 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8.06.

48) 조한솔,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P.24, 『연구보고서04-056』, 한국국제협력단, 2012.03.

49) 이보배, 「한국, '글로벌 공공재' 코로나 백신 위해 360억 기여키로」, 데일리 투머로우, 2020.06.05.,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5>

50) 정재훈, 「성인용 기저귀서 마스크까지... 필터 기술력 인정 해외 수출길」, 영남일보, 2020.06.20.,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618010002682>

51) 오세성, 「한국, WHO 집행이사국 선출……. 'K-방역' 세계표준화 가속」, 한국경제, 2020.05.19.,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1951687>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글로벌경제학과 박수빈

1학기에 열린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1학년 때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막 학기에 재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년이 이미 다 차다 못해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들은 수업이라 학우들에 비해 좀 더 쉽게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만, 시기에 맞춰 1학년 때 들었다면 학교생활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대학생, 특히 새내기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포트 작성법, 인용하는 법, 맞춤법 등 잘 아는 듯 싶지만 언제든 헛갈릴 수 있는 것들을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맞춤법의 경우, 레포트나 논문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틀리며, 잘 못 알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학습하여서 좀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맞춤법 사용과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비문'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생활환경이라, 저도 모르는 새에 영어식 문법구조가 몸에 베였고, 종종 한국어를 사용하여 글을 쓸 때도 그런 습관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특히, '~하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등 피동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을 기점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국문을 사용해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글쓰기 수업(설명문, 주장문)과 그 과정에서 학우들과의 상호학습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장문 초고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학우들이 제게 해 준 질문은 제가 글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후기를 쓸 수 있는 것도 함께 한 학기를 보낸 학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8년 동안의 암흑을 견딘 뒤 세상에 발을 디디며 매미가 찌르르 울던 무렵 경기도 안산의 산부인과에서 어여쁜 여자아이도 “응애응애” 세상을 향해 우렁찬 인사를 건넸어. 아이가 자신만의 수영장에서 더 놀고 싶어 했던 탓에 아이의 엄마는 꼬박 이틀 동안 고통을 견뎠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의 후련함 대신 마취약의 몽롱함과 함께했어. 아이도 엄마의 따뜻한 품과 음성 대신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차가운 인큐베이터를 느껴야 했지. 아이가 세상과 첫인사를 나눈 황홀한 순간이었어.

아이는 모든 것이 느렸어. 눈을 지구로부터 30cm 떨어뜨리기 위해서 2년 동안 다리 힘을 길렀고 태어난 지 21개월 되던 달에 모든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 대신했던 때를 지나서 오빠, 아빠, 엄마가 내뱉는 그 무언가를 따라 하고 싶어 웅얼웅얼 어설피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마침내 세상살이 30개월째, 몇 개 되지 않는 단어를 이용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어. 부모님은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유치원에서 글을 혼자만 못 읽는다고 친구들이 놀려서 영영 울며 집에 온 아이를 보고 글자를 알려주기 시작했지. 창문 바깥세상에서 꼬불거리는 문자를 이해하는 것에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야. 그때부터 아이가 지나간 길에서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어. “이게 뭐야?”, “저게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빵과 라면을 너무 좋아한 탓이었을까? 아이는 항상 수줍은 듯 발그레한 볼과 함께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을 갖게 되었어. 아이는 텔레비전에 나온 발레리나를 보고 너무 좋아했고 부모님이 큰맘 먹고 사주신 발레복을 입고 설렘에 배시시 웃는 얼굴과 동시에 어딘가 떨리는 마음에 덜덜 떠는 손을 달래며 동사무소 발레 수업을 들으러 갔어. 그런데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수업 듣기 싫다고 영영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아이를 안고 진정시키는데 애썼지. 아마 그때 아이의 엄마는 몰랐을 거야. 날씬하고 짙은 팔과 다리를 가진 아이들과 다르게 소시지 같은 내 팔과 다리, 그리고 복숭아같이 별걸고 동그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못나 보여서 불쑥 울음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말아야.

난생처음 교복을 입고 등교했던 날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던 아이의 얼굴이 생생해. 초등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받던 아이는 첫 시험에서 ‘수학’이라는 글자 옆에 빨갭게 써진 43이라는 숫자를 보고 숨넘어가듯 울었어. 그게 자극이 되었던 걸까. 아이는 두 번째 시험부터 성적이 로켓이라도 단 듯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 난생처음 ‘자신감’이라는 것을 느꼈고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었지.

‘행복’이라고 정의되던 날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 중학교에서 성적을 잘 유지했던 아이

는 자연스럽게 성적대가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숨 쉬는 시간마저 아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찬란했던 과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나태함과 건방짐만 가지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돼.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잃어가고 어둠 속에 사는 것 같은 3년을 보내게 돼. 괴로웠던 입시가 끝나고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감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아이에게 지난 3년은 잊기 힘든 악몽으로 남아있어.

아이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이었지만 가장 최근 3년 동안의 삶이 스스로 버티기에 너무 힘들었던 것일까? 아이는 그 기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스스로의 삶이 우울함과 힘듦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삶 속에서의 고난과 역경은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일뿐이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흘러가는 길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특히나 어두침침했던 아이의 최근 3년은 매미가 성충이 되어 날아오르기까지 홀로 땅속에서 기다리는 8년과 같은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 그리고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인고의 시간을 견뎌 매미처럼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해.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의용생체공학과 서예원

저는 김학찬 교수님의 과학 기술 글쓰기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평소 글을 즐겨 쓰거나 글 쓰기에 자신이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 전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무작정 글만 쓰는 수업이 아닌 글을 쓸 때 실제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적용해보는 글을 써서 과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용, 주석에 대한 분류와 사용 예시에 대해서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정보의 출처 표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의 글쓰기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성찰의 글쓰기, 의료칼럼 작성하기, 비평하는 글쓰기 등 매주 다른,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의 목적에 따른 작성 방법과 글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재미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성한 글을 과제로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학우들과 서로의 글을 공유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본인의 글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제 글쓰기 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었고 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훌륭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글을 쓰는 것이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김학찬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급무휴, 유급유휴

옛 동화에서, 두 나무꾼이 나무를 베러 갔는데, 쉴 새 없이 나무를 베는 나무꾼보다 중간중간 쉬며 도끼날을 갈 나무꾼이 더 나무를 많이 벨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한 번쯤 들어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쉼’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급휴가, 즉 돈을 받으면서 쉴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들리는가? 앞서 말한 쉼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급여를 받으며 쉰다는 개념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 유급휴가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이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유급휴가 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유급 휴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실제로, 우리나라는 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특히 유급휴가 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 사용 촉진 방안 및 휴가 확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차휴가 15.1일 중 7.9일만을 사용한다. 또 왕상한의 「한 평의 남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급 휴가 일수는 15일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유급 휴가 일수는 7일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탈리아는 무려 8주간의 유급휴가 보장을 자랑한다. 심지어 결혼과 출산을 했을 경우 유급휴가의 일수는 더 늘어나고, 노동자는 물론 고용주들조차 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여기서 흑자는 그렇게 많이 쉬면 업무의 효율은 누가 책임지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OECD가 GDP 당 시간효율에 근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의 효율은 이탈리아가 무려 72.8%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 45%에 그쳐 있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휴식이 보장되어야 일의 효율도 늘어난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급휴가의 중요성은 이뿐 만이 아니다. 양국의 휴가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다도, 한국은 모두 이탈리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UN이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는 이탈리아가 36위, 한국이 54위이다. 또한 고가영의 「한국인의 여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하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참여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여건 상 관람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온다. 이는 곧 전체 여가에서, 활동적인 여가보다 TV 시청 등 비활동적인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65.2%에 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 국민의 휴가 질, 그리고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유급휴가의 형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 사회는 유급휴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 그간 노동과 쉼을 분리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과 쉼에서 오직 ‘노동’이 생산적인 활동이기에 노동에 대한 급여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과 쉼은 삶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와 마찬가지로,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는데, 휴가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급여가 보장되는 노동

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경직된 조직문화와, 출산에 대한 무언의 압박도 유급휴가 제도의 실현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러한 원인들을 고려해서, 우선 노동과 쉬를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하며, 경직된 조직문화와는 별개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삶의 질과 휴가의 질을 고려해서라도 유급 휴가 제도는 꼭 필요하다. 이제는 급여를 받으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취급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치위생학과 양세진

이 글은 의료보건글쓰기 수업의 시사평론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인용, 각주, 참고 문헌을 포함한 글쓰기 윤리와 바른 문장 쓰기에 대해 배웠고, 자기성찰 글쓰기 등을 통해 저의 전공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글을 작성한 시사평론 글쓰기 과정은 4-5주에 걸쳐 조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함께 시청했고, 이 속에 나오는 여러 나라 중 한국과 비교할 만한 나라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별 회의를 통해 비교 기준을 선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시사평론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후 개별로 시사평론을 한 편씩 작성하였고, 마지막 주에는 조원들의 글을 돌려보며 평가표를 토대로 동료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제는 조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조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자료 조사에 있어서도 부담이 훨씬 적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료 평가 시간에서 조원들의 글을 읽으며, 글쓰기의 상당한 과정을 공유했음에도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한 그 글들 속에 있는 신선한 표현 방식이나 전개 방식 등으로 인해 즐거웠고, 평가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글을 한 층 더 깊게 읽을 수 있었으며, 저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강의 자료 송출과 음향 문제의 어려움과 더불어, 조별 모임이 인터넷 상으로만 가능했던 점, 수업 당일 과제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 매주 과제 마감 기한에 쫓겨야 했다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달팽이를 키우는 나, 나를 키우는 달팽이

나는 달팽이를 키우고 있다. 불에 그슬린 듯한 갈색빛 무늬를 가진 달팽이를.

달팽이를 처음 만났던 작년의 그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 날따라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나에게 초록빛 풀과 나뭇잎이 유난히도 눈에 아른거렸다. 온통 초록빛이던 작은 화단 속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갈색의 점 같은 것을 발견하고, 나는 저절로 발걸음을 옮겨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화단 속에서 갈색의 빛을 띠는 달팽이 한 마리가 동그랗게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사실 달팽이와 나와 인연의 시작은 이보다 더 먼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릴 적 나는 항상 차분하고, 별 고민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태연함을 유지하는 아이였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화낼 줄 모르며 항상 사람 좋게 허허 웃고 다니곤 했다. 그런 이유로 나의 학창시절 별명은 거북이, 낙타 그리고 ‘달팽이’ 같은 온순함과 노곤함의 상징 같은 동물들이었다. 나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양한 별명 중 나는 특히나 달팽이와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느릿하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점이라든가, 동그랗고 유순하게 생긴 눈꼬리라든가, 심지어 몸에 땀이 많아 손이 자주 축축해진다는 점에서도 달팽이와 나는 많은 부분이 닮아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도 달팽이와 나는 닮아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가 오는 날 데려온 그 달팽이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날, 나는 달팽이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홀린 듯이 그 작은 생명체에게 손을 내밀었다.

달팽이의 특성 중 하나는 말랑한 몸과 딱딱한 집이라는 대비되는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달팽이 껍질은 단단해 보이지만, 어린 달팽이의 경우에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껍질이 쉽게 부서진다. 하지만 연약한 달팽이의 껍질은 달팽이와 함께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점점 더 견고해지고 딱딱해진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달팽이와 내가 공유하는 내면적 공통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어릴 적부터 어디에도 화낼 줄 모르는 아이였다.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타인의 눈치를 살피느라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숨기고, 타인에 맞추기 급급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나는 누군가가 살짝만 툭 하고 건드려도 바로 움츠러들며 집으로 숨기 바쁜 겁많은 달팽이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라오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아픔의 경험을 겪었다. 그 과정들로 인해 나는 다시 상처받고, 상처받은 딱지가 아물며 아픔의 감각은 점차 무뎠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 나는 더이상 예전처럼 혼자 상처받고, 상황을 회피하며 나 자신을 숨긴 채 달팽이 집으로 도망가지 않는다. 성장하면서 겪은 그동안의 경험들과 아픔들은 나의 내면에 겹겹이 쌓여 단단한 지지대를 형성했다. 그렇기에 나는 더는 상처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의 여렸던 내면의 살점들은 더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달팽이처럼.

나와 비슷한 생명체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이다. 그들의 작은 행동의 방식과 변화를 포착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고, 나 혼자 그 생명체의 단순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감탄할 때도 있다. 달팽이를 지켜보면서, 그들과 나의 공통점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끈끈히 만들어주는 듯하다. 이제 나의 일상에서 달팽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한 생명체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그러한 깨달음에 그치지 않았다. ‘달팽이’라는 작은 생명체에게서 상처를 딛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단순한 일상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배웠다. 달팽이를 키우는 건 나지만, 오히려 달팽이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르쳐주었다. 달팽이와 나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 중인 것이다.

이 작은 생명체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상추를 뜯어 먹는 단순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달팽이와 비슷한 특성을 가졌다는 건, 예전과 달리 나에게 색다른 기분을 안겨준다. 외형적 유사함을 넘어서 그들과 공통적인 성장 과정을 공유했다는 사실로부터 달팽이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도 느리지만 단단하게 달팽이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한다.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의료경영학과 옥나경

위의 본문은 1학년 기초 교양 강의인 '인문사회 글쓰기' 수업을 통해 작성한 글입니다.

저는 글쓰기의 경험이 많지 않을뿐더러, 하나의 완결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 또한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번 글쓰기 경험은 '자아 성찰'이라는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주제 아래 저만의 경험을 색다르게 글로써 표현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첫 문장을 작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수정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한 글자씩 글을 써 내려갈수록 저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실제로 저는 달팽이를 키우며 많은 시간을 달팽이를 관찰하면서 보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달팽이와의 공통점을 인지했기 때문인지, 그저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했던 것인지,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를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으로 본인의 관찰 행위를 해석하고 한 생명체와의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쓰기의 주제였던 '성찰'의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살아오면서 추상적으로나마 정답이 있는 글쓰기를 대부분 해왔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나 각종 감상문과 보고서들이요. 하지만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글쓰기에는 어떠한 방향도, 정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상해보며 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다른 글쓰기와 달리 비교적 편안하고 부담감 없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 푸드 말고, '패스트 패션'을 알고 계시나요?

의류를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유통하는 '패스트 패션'이 어느새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우리는 이러한 소비 습관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 소비의 긍정적인 측면 뒤에 가려진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패스트 패션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스트 패션'이란 소비자의 기호를 즉각 파악해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하는 의류⁵²⁾를 말한다.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유행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바로바로 반영되어 빨리 바뀌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이름처럼 패스트 패션은 저렴한 가격과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파악해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SPA 라고도 불린다. Specialty stores, retailers of Private-label Apparel 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제조 직매형 의류 전문점'이라는 뜻이다. SPA 브랜드로는 스페인의 자라(Zara), 스웨덴의 H&M, 미국의 갭(GAP), 일본의 유니클로(UNIQLO) 등이 있고 국내 브랜드로는 미쏘, 스파오 등이 있다.⁵³⁾ 한 번쯤 들어본 친숙한 브랜드들이다.

먼저 패스트 패션의 가장 큰 문제는 과소비를 불러일으켜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유행에 민감한 만큼, 소비자가 싫증을 내기도 쉬워 과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이 과소비가 의류 쓰레기를 늘리는 큰 원인이 되어 이것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맥킨지 앤드 컴퍼니의 보고서인 『Style that's sustainable: A new fast-fashion formula』에 따르면 패스트 패션이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의류 구매량이 해마다 60%씩 늘었다고 한다.⁵⁴⁾

유행이 지나 한 시즌도 채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옷들은 소각될 때 각종 유해 물질을 발생 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옷값을 낮추기 위해 주로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를 이용하는데 합성 섬유는 마찰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수십에서 수백 년이 걸리고, 섬유 덩어리에서 빠져나온 화학 물질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물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섞여 환경이 오염시킨다.⁵⁵⁾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은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다. 패스트 패션의 장점 중 하나인 저렴한 가격 뒤에 숨겨진 노동착취구조의 문제가 있다. 저렴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동력이 싼 나라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당하지 못한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 구조이다.

52) pmg 지식엔진연구소, 「패스트패션」, 『시사상식사전』, 2019. 01. 1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15805&cid=43667&categoryId=43667>>, 2020. 06. 15.

53) pmg 지식엔진연구소, 「패스트패션」, 『시사상식사전』, 2019. 01. 1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15805&cid=43667&categoryId=43667>>, 2020. 06. 15.

54) 황경주, 「SPA 여름세일 '득템' 찬스?...오늘 산 옷, 몇번이나 입을까」, 『취재K』, 2010. 06. 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27260&ref=A>, 2020. 07. 05.

55) 사이언스투데이, 「환경 파괴하는 패스트 패션」, 『에코매거진』, 2018. 12. 03.,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0018&key=201812031640386180, 2020. 07. 05.

이처럼 패스트 패션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은 패션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물 방적 공장을 신설해서 재활용 기술로 의류 폐기물을 되살리는 데 힘쓰고 있다. 유럽에서는 제조업체가 의류에 사용된 화학성분을 수량화하고 엄격히 검사하도록 하는 '유럽화학물질관리규정(REACH)'을 만들기도 했다.⁵⁶⁾

또, 일부 친환경 브랜드들이 지난 컬렉션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자재를 사용하거나 버섯의 균사체나 선인장 가죽으로 만든 식물성 가죽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해 지속 가능 패션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식물성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지역 농가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다.⁵⁷⁾

소비자가 유행하는 옷을 빠르게 살 수 있고 값싼 가격에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기업은 소량의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므로 빠른 회전 덕분에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에게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고 기업에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소비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많은 폐해가 발생하여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지금 건강한 소비에서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작정 이상적인 방향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보아야 할 점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비자에게는 값비싸고 윤리적인 소비가 여전히 생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을 벌고 어떻게 소득을 정규화시키고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대 소비자인 내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한정된 돈을 가진 소비자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최신 유행을 쫓는 패스트 패션에 열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윤리적 소비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패스트 패션 제품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구매력과 유행을 고려할 때 구매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방안은 작은 실천이지만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는 자발적 인식개선과 함께 올바른 소비 습관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유행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옷을 구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 습관이 과소비를 막고 오랫동안 옷을 입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옷을 버리기 전에 재활용하거나 단체에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옷을 구매할 땐 화려한 패스트 패션 산업 뒤에 숨겨진 환경오염문제와 노동착취구조 문제처럼 어두운 면까지 함께 고려하여 환경과 인권을 함께 생각하는 바른 소비를 지향하여 패스트패션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발적 인식개선과 올바른 소비 습관 구축을 통해 과소비를 막고 재활용하거나 단체에 기증하는 방법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실천한다면 패스트패션 소비로 발생하는 여러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6) 사이언스투데이, 「환경 파괴하는 패스트 패션」, 『에코매거진』, 2018. 12. 03.,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0018&key=201812031640386180, 2020. 07. 05.

57) 이광주, 「패스트패션 하향, 지속가능 친환경 패션 부상」, 『Fashionbiz』, 2020. 04. 07., <http://www.fashionbiz.co.kr/TN/?cate=2&recom=2&idx=177536>, 2020. 07. 05.

<참고 문헌>

pmg 지식엔진연구소, 「패스트패션」, 『시사상식사전』, 2019. 01. 1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15805&cid=43667&categoryId=43667>>, 2020. 06. 15.

황경주, 「SPA 여름세일 ‘득템’ 찬스?...오늘 산 옷, 몇번이나 입을까」, 『취재K』, 2010. 06. 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27260&ref=A>, 2020. 07. 05.

사이언스투데이, 「환경 파괴하는 패스트 패션」, 『에코매거진』, 2018. 12. 03.,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0018&key=201812031640386180, 2020. 07. 05.

이광주, 「패스트패션 하향, 지속가능 친환경 패션 부상」, 『Fashionbiz』, 2020. 04. 07., <http://www.fashionbiz.co.kr/TN/?cate=2&recom=2&idx=177536>, 2020. 07. 05.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한국어문학과 이유빈

인문사회 글쓰기 강의 중 주장하는 글쓰기 수업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브레인스토밍과 개요 짜기 활동을 먼저 하고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되어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와 글의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설득력 있는 결론과 해결점에 도달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깊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강의였다.

자기 탐색 글쓰기 수업은 글을 작성하기 전에 자기 탐색 활동을 하고, 자기 서사를 구상해 보며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미래의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한 삶을 성찰해보는 과정에서 나의 삶을 이해하고, 타인의 삶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값진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가피한 대면 강의였음에도 교수님께서 주석을 달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고, 글을 발표한 후에 채팅을 통해 학우와 좋았던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의미있는 수업이었다.

밀어내기 전에 가져보아야 할 의문,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는가?”

“2020학년도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입학을 포기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나는 답을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한동안 갇혀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은 크게 ‘수용’과 ‘거부’로 나뉜다. 숙명여대 등의 여성단체에서 발표한 성명문은 “여자들의 공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여성만의 공간에 남성이 침입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의 표현이라 볼 수 있으나, 결국엔 혐오 표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표현만큼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두려움과 같은 사람의 마음만큼은 누가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트랜스 여성을 완전히 여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한참이나 해결하지 못했다. 한 여성으로서, 나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게 되었다.

숙명여대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와 페미니즘, 생물학적 여성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가 갈등을 빚는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로, 성명서에서 언급됐듯 MtF 트랜스젠더는 여성만의 공간을 침범하려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여성들에게 강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tF 트랜스젠더는 아무리 자신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 주장해도, 그가 기존에 생물학적 남성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지울 수 없기에 거부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페미니즘과 MtF 트랜스젠더의 지향성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탈코르셋으로 상징되곤 하는 페미니즘 안의 사회적 여성상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상징적이고 고정적인 여성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데, 트랜스 여성들은 ‘더 여성스러운 것’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사회적 여성상에 부합하는 행동과 말투와 외모를 가꾸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을 단순히 여성스러운 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존재들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성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젠더 이분법이 중심이 된다. 즉, 여성과 남성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이 기본이다. 트랜스젠더들은 이 기본적 구조에 반하는 일탈적인 존재로서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트랜스젠더들은 젠더 이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생산하고 있다.⁵⁸⁾ 트랜스 남성과 여성이 각각 사회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그들이 젠더 이분법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그렇게 젠더 이분법에 강력하게 얽매어 있는 이유는 사회의 차별적 시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결과이다.⁵⁹⁾ 사회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외모적 특징에서 비롯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랜스젠더들은 젠더 이분법을 적극 수용하게 된 것이다.

58) 손인서,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 구성」, 『경제와사회』, 비판사회학회, 2018, 207쪽

59) 위의 글, 213쪽

더 ‘여자 같을’수록 진짜 여성으로 여겨지는 트랜스젠더 내 문화, 이건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다. 생물학적 여성에게도, 생물학적 남성에게도 “여자 같지 않다.” 혹은 “남자 같지 않다.”라는 잣대가 들이밀어진다. 트랜스여성이 성형수술을 거듭해 더 여자 같은 외모가 되어 ‘진짜 여성’으로 거듭난다면, 그들에 비해 ‘여자 같지’않은 외모의 여성은 진짜 여성이 아닌 걸까? 젠더 이분법, 사회의 지배적인 여성성과 남성성, 과연 그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할까? 가부장제와 함께 너무나 오랜 시간 익숙해져 온 것이기에 당장 젠더 이분법에서 탈피하자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여성만의 공간”을 주장했던 위 성명문의 입장 또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트랜스젠더에 관한 논란들 중 빠지지 않는 내용이 ‘여자 화장실’ 등의 키워드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했다는 점 자체가 그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를 거란 사실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두려움, 원래 남성이었던 자와 여성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꾸밈 하나 없는 진실일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편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편견은 트랜스젠더와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심화되는 동시에, 그들을 더욱 구석으로 숨어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정된 성별을 바꾼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의문점을 마구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유를 인지하기도 전에 불쾌감의 표시부터 하기보단, “성별이 뭐가?”라는 근본적인 고민 또한 던져볼 필요가 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던 옛 선조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신체를 기호에 따라 성형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별이라고 해서 그 본질적 의미를 고민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가 젠더이분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며 천천히 나아가는 동안, 트랜스젠더 또한 자신의 인생의 주체로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점은 “그들은 지금, 내 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은 사회의 시선을 고스란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적어도 그 점을 인지한다면 혐오보다는 이해를, 배척보다는 공존을 우선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내 뿌리깊던 인종차별이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이후부터 점차 감소해왔던 것⁶⁰⁾처럼,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들이 보다 열린 공간에서 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교류하게 될 수 있다면 좋겠다.

60) 현성용 외, 『현대 심리학 입문』, 학지사, 2016, 377쪽

<참고문헌>

햇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월간복지동향』 245,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9, 23-28쪽

손인서,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 구성」, 『경제와사회』, 비판사회학회, 2018, 198-228쪽

루인, 「젠더로 경합/불화하는 정치학」, 『여/성이론』38, 도서출판여이연, 2018, 101-131쪽
천관울, 「2020년의 첫 질문 혐오란 무엇인가」, 『시사인』 649, 2020.2.17.

김준수, 「'진정한 여성'임을 증명하라는 말의 역설」, 『오마이뉴스』, 2020.6.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985&CMP_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0.7.2.

허진무, 「트랜스젠더 여학생 숙명여대 입학 포기」, 『경향신문』, 2020.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71614001&code=940100, 2020.7.2.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자유전공학부 이지원

제가 들은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은 거의 매주 크고 작은 과제가 있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수업이었지만, 다른 수업의 교수님께서도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만큼 대학생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과제를 전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끝마쳤다고는 못 할지 몰라도, 종강 이후 저의 성과물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제가 성장했음을 가장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자유글쓰기를 포함해 요약문, 논평문, 칼럼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을 배우고 쓸 수 있고 대학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용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비롯해 동료들과의 토론, 상호 피드백 등의 활동이 제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기도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화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아쉽기도 했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식을 찾고자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상호 피드백 활동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남기는 피드백이라 그런지 더 조심스럽게 글을 남기려다 보니 상대방의 글에서 고쳤으면 하는 점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발전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의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은 1학기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수업인 동시에, 가장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줬던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해준 수업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수상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경험이 될 듯합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그렇겠지만, 자신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수업 과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은 특히 더 그런 수업입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듣는 수업이기도 한 만큼 성실하게, 또 진심을 다해 수업과 과제에 참여한다면 분명 대학생활의 좋은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목표가 된 영어는 과연 옳은 것일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인 언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언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에게 언어란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이 도구에는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또한 영어도 이들 중 하나에 속하고,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언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등의 사교육에 의존한 언어 습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학습해, 학생들이 영어를 수단이 아닌 목표로 보는 공부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는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영어와 영어의 문제점, 글로벌 시대의 영어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무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성세대들의 영어 시험 점수가 좋으면 엘리트 인재라고 생각하는 달린 사고 때문인데,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70~80년대에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고학력자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온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배울 것을 강요하고, 아이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영어의 세계에 들어가 점수만을 위해 공부하게 된다.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가 있는지, 수준에 맞는지 등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유치원/학원에 보내 학습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한미교육연맹의 박재현 지부장은 이처럼 아이들이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영어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아이가 무조건 영어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부모의 조급증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⁶¹⁾ 실제로 우리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벌써 ~레벨이다. ~등급까지 올라갔다.'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며,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문법과 쓰기에 치중된 특성을 보인다. 이를 유럽 국가와 비교해 알아보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공부량은 유럽 국가를 능가할 만큼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어능력을 유럽 8개국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영어능력은 꼴등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수업 방식의 차이에 있다. 유럽 국가는 영어를 가르칠 때,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과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하도록 한다.⁶²⁾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는커녕 바로 알파벳부터 시작해 문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시간에 문법은 배우지 않고, 토론 중심으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며 문법을 틀리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⁶³⁾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

61) 김종균, 「[우리아이 영어 잘하려면] 영어 올림종보다 무서운 건 부모의 조급증」, 『부산일보』, 2009.01.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71019000266>.

62) 전종민, 「유럽 8개국 초·중등학교의 영어교육 현황」, 『외국어 교육연구』, 제 8집, 서울대학교, 2005.

63)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최연혁의 북유럽 이야기」 영어를 잘하는 스웨덴의 비결, 『여성신문』, 2019.04.24.,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756>.

들은 영어에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흥미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구조 중심적/문법 중심적 교육을 하며, 틀리면 고치도록 강요하여 표준 영어에 맞는 지식을 갖도록 한다. 이때 아이들은 틀리는 것에 주눅 들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가는 것이다. 또 학창시절에는 학교 시험, 수험생일 때는 모의고사와 수능 영어, 취업할 때는 한국에 있는 공인 영어 시험인 토플/토익/아이엘츠/텡스/오픽/지펠트 등을 치르며 아이들은 글 중심의 문법과 쓰기만 강조된 시험을 치르기 위해 끊임없이 이 틀 안에서 공부한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글로는 잘 쓰지만 말로 꺼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나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과도한 영어 교육이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4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년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만 3세에 영어를 시작한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11배에 달한다고 한다.⁶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아이들은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의 목표도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접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학교나 학원에서 내주는 시험만 통과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 영어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닌,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 여기서부터 영어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담감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례로 2011년 카이스트에서 4명의 학생과 교수 한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다. 사건의 원인은 ‘전면 영어 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였고, 이는 당시 총장이었던 서남표 씨가 누구든지 의사소통이 불가하면 안 된다며 모든 강의의 전면 영어수업을 실시하게 한 것이다.⁶⁵⁾ 실제로 이 학습 방식을 경험한 33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영어 수업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들 중 59.5%의 학생들은 수업에 불만족한다고 답하기까지 했다.⁶⁶⁾ 더불어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이신 최광무 교수님은 ‘서양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만들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의 것을 더욱 개발하고 노력하면서 다른 나라에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영어를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하였다.⁶⁷⁾

나는 이 분의 말에 공감한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른 나이부터 과도하게 영어를 공부하곤 한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여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이분 말처럼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다. 2008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는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역사가 내용을 전달하여 준다고 한다.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는 관례적으로 영어를 써온 기념 강연에서도 일본어로 진행하는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었고, 대학원 입학시험을 볼 때는 영어점수가 현저히 낮았지만 수학과 물리에서 엄청난 재능을 보여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고 입학하였다고 한다.⁶⁸⁾ 이처럼 나는 영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더 좋아

64) 이정원, 「유아 영어 교육 시작 시기, 10년 전 비해 11배 폭증」, 『EDUJIN』, 2014.10.16.,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

65) 허환주, 「카이스트 100% 영어 강의는 미친 짓이다.」, 『프레스리안』, 2011.04.11.,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04017?no=104017>.

66) 이정훈, 「식민지도 아닌데 왜 영어로 수업하나」, 『한겨레21』, 2011.04.2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9442.html.

67) 허환주, 앞의 글, 1-3문단.

68) 허환주, 앞의 글, 4문단.

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어보다 더 나은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영어를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있으면 좋을 부수적인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어 즐기며 영어공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로, 앞에 나왔던 유럽 국가는 수업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국가 공영 방송에서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고, 자막 없이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 네덜란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0%의 학생들이 영어로 된 영화를 자막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⁶⁹⁾ 이처럼 유럽 국가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접하고 영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처럼,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영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영어 동기를 높여주는 것이 점수가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 영어를 사용할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언어, 영어를 배우고, 즐기는 것은 나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영어에 집착하는 대신, 내가 부담 없이 즐기며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발전시키고 영어를 사용할 환경을 만들어 주면 더 바람직한 영어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영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며, 원하는 일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69) 전종민, 위의 글.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경영학부(경영학과) 이하은

인문사회글쓰기라는 과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우던 국어 수업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몰랐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 수업이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매일매일 글의 기초부터 내 생각을 펼치는 방법까지, 이 수업을 통해 내가 알고만 있던 지식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을만큼 성장해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제로 낸 이 글이 좋은 성과를 얻어 정말 기쁜 것 같다. 평소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들도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수업시간에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질문들에도 최대한 알려주시려는 모습에 더욱 열심히 임했던 것 같다. 이 과제를 통해 내가 관심있던 주제를 깊이 탐구해볼 수 있어서 더욱 열심히, 흥미를 갖고 할 수 있었다.

비록 이번 학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첫 수업부터 열정이 넘치셨던 교수님 덕에 처음 가본 학교도 낯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 보러갈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도 꼭 교수님과 함께 수업했으면 좋겠다. 항상 감사합니다 :D

노키즈존(No-Kids Zone): 부모로서의 책임을 상기시키다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인 '노키즈존(No-Kids zone)'이 대한민국에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일부 부모가 아이들이 매장 내에서 소란스럽게 놀도록 방치하고, 매장 내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서울의 카페에서 부모가 커피 잔에 아이 소변을 보게 한 뒤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떠났던 사건⁷⁰⁾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노키즈존의 형성은 이러한 부모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노키즈존에 대한 정당성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논쟁의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일축할 수 있다. 첫째로 누구의 권익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 둘째, 시행의 성질이 구분에 가까운지 차별에 가까운지,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이다.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노키즈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⁷¹⁾, 10명 중 6명(66.1%)은 노키즈존에 찬성했으며, 실제로 경기도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⁷²⁾ 응답자의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측의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노키즈존에 대한 옹호는 개인 사업자와 다른 손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라는 의견이다. 사업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의 권리인 경영권은 사업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고, 노키즈존도 운영방식의 하나로써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의 권리를 존중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다른 손님도 부모, 아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로서 같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다른 손님들이 방해받지 않고 매장 내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키즈존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노키즈존이 그저 구분에 가까운 조치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사실상 매장 내 입장의 제한을 두는 것은 노키즈존 뿐만이 아니다. 반대로 어른의 입장을 막는 '키즈존(Kids zone)' 또한 존재한다. 대표적인 키즈존에는 키즈카페나 점핑파크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매장 내 입장의 차이를 두는 것이 오로지 사업장의 특성에 충실한 것일 뿐이므로 노키즈존은 차별이 아니라 구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견의 내용이다.

셋째, 아이들의 입장을 허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법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2008년 대구의 식당에서 24개월의 아이가 식당 안을 뛰어다니다가 직원이 옮기던 화로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식당 측과 부모에게 동일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⁷³⁾ 이처럼 사업주는 법원의 판결을 통한 법적 구제를 바랄 수 없다. 따라서

70) 강윤경, 「[CLICK] 음식점, 카페 '노키즈존' 확산」,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Vol. 2015 No. 9, 2015, 106쪽

71) 심정보, 「[영상] '노키즈 존' 찬성? 반대? 당신의 생각은?」, 『중앙일보』, 2018.8.24

72) 김도균, 유보배,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연구원, 2016, 3쪽

73) 한정수, 「[the L] [Law&Life-노키즈존, 위험? ②] 식당에서 유아 관련 사고 나면 식당도 일부 책임」, 『머니투데이』, 2018.06.30

예방책으로의 노키즈존 실시는 사업자에게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노키즈존 반대 측 입장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재반박할 수 있다. 우선 부모와 아이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될 수 있는 권리에는 ‘행복 추구권’과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노키즈존이 그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대로 부모와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다른 손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당 내에서 민폐를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부모와 아이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또한 소비자로서 가지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어 반박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노키즈존 시행을 비난할 수 있겠으나, 침해된 권리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미약하다. 왜냐하면 모든 가게가 노키즈존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키즈존으로 인한 가게 출입 제한 조치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없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둘째로 노키즈존이 아동혐오가 바탕이 되는, 차별에 가까운 조치라는 반대 측의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논거로, 2017년의 인권위 결정⁷⁴⁾이 있다. 하지만 실제 노키즈존을 시행한 이후 하락한 가게의 매출⁷⁵⁾수치를 보면, 사실상 영업주가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에서 오는 메리트는 크게 없다. 따라서 노키즈존의 시행은 영업의 최우선적 목적인 이윤추구를 일단 보류해두면서까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응방책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영업주의 아동 혐오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아이와 부모 손님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재적 상황에 대한 과잉조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은 영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발생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키즈존이 예방적 조치라고 본다면, 이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험 회피를 위한 예방조치의 정당성이 수단선택의 과잉문제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키즈존의 시행은 영업주를 위험의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다.

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노키즈존은 사업자와 다른 손님의 권리를 지키는 구분의 조치일 뿐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판례가 사업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므로 사업주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노키즈존을 편의를 추구하는 수단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노키즈존에 이어 새롭게 배드 패런트 존(Bad parents zone)이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닌 부모로부터 비롯된다는 시각 때문이다. 따라서 노키즈존의 존재를 비난하기보단 오히려 이러한 존재가 상기시키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실감하고, 이것의 필요성이 자연스레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74) 당시의 결정문의 요지는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일반화를 바탕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75) 봉수현, 「노키즈존 찬반 논란 뒤에선…」, 『주간조선』, 2016.6.27.

참고문헌

1. 국내논저

- 강윤경, 「[CLICK] 음식점,카페 '노키즈존' 확산»,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2015
- 김도균, 유보배,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연구원, 2016
- 봉수현, 「노키즈존 찬반 논란 뒤에선…」, 『주간조선』, 2016
- 심정보, 「[영상] '노키즈 존' 찬성? 반대? 당신의 생각은?», 『중앙일보』, 2018
- 한정수, 「[the L] [Law&Life-노키즈존, 위험? ②] 식당에서 유아 관련 사고 나면 식당도 일부 책임」, 『머니투데이』, 2018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법학과 정민경

처음에는 인문사회 글쓰기라는 강좌가 딱 교양 필수 이수과목으로서 다가 왔을 뿐, 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글을 잘 쓰고 싶다는 무의식적으로 내제된 욕망이 있었고, 덕분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하나씩 해내가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들었던 김진호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 강좌를 토대로 수업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의 유형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논리 정연한 글을 쓰고 싶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독서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독서록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루쉰의 《아Q정전》을 선택했는데, 오랜만에 읽은 고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소설이라 부담 없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에는 알맞은 맞춤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맞은 각주 다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에게는 특히나 각주를 다는 수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등학생 시기에 소논문을 적어서 내는 활동을 했었는데, 논문 저술방식에 대한 기초개념이나 지식이 없어 매우 힘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좌를 수강하면서 비록 논문은 아니지만, 한편의 완성된 논설문을 써보면서 스스로 각주를 달아보고, 퇴고를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오래된 궁금증이 해소되고 확실하지 않았던 지식이 재확인되었던지라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외에 요약과 논평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글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이 바탕이 되는 수업이다 보니 조금은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긴 글을 읽을 때에도 중요한 주장과 근거를 잘 살피고 그 연결성을 파악하는 연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연습이 반복되다 보면 수업 초기에 원했던 논리 정연한 글을 쓰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 강좌가 1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에는 알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하여금 대부분의 전시회나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강의였던 것 같아 만족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리셋하고 있으신가요?



[그림 1] 리셋 버튼 (사진 : TomFerry.com)

“나 올해 수능 시험 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갈 것 같아. 올해는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재수할 거야.” “나 개랑 싸웠는데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손절하고 더 좋은 애랑 만나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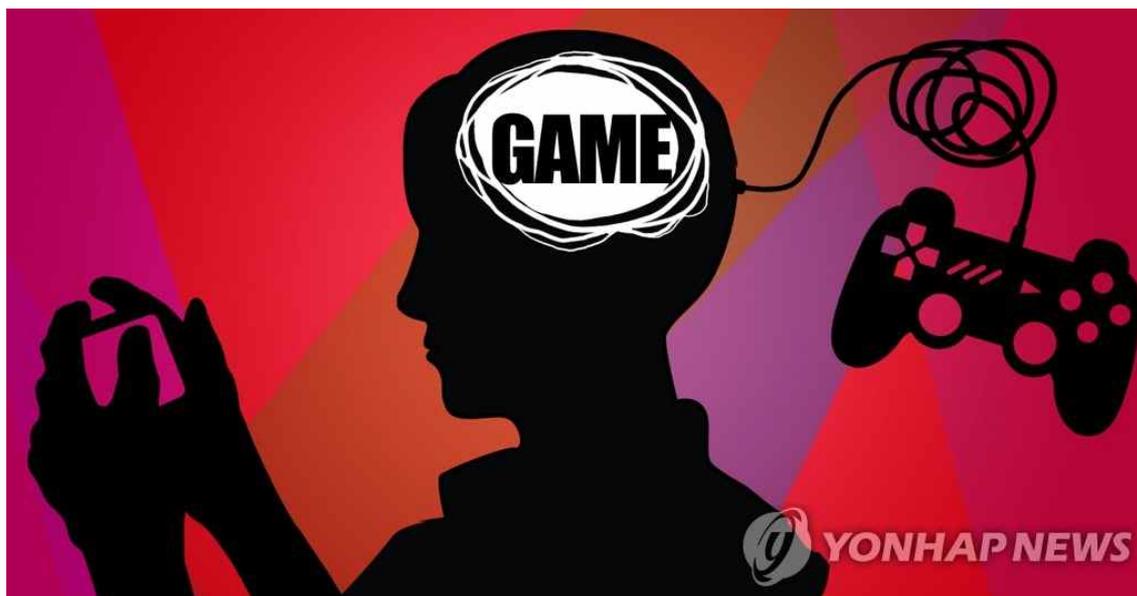
이와 비슷한 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꽤 많이 해왔을 것 같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리셋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다. 리셋 증후군(reset syndrome)이란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열린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자기 맘에 안 들면 지금까지 벌여 놓은 일이나 인간관계 등을 쉽게 다시 시작하려는 현상이다.

리셋 증후군은 원래 게임 중독이 망상장애로 발전한 것으로서 현실과 게임 공간을 분리하지 못하여 생기게 된 사회 병리적 현상이다. 이걸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옛날에 있었다. 1997년에 일본에서 컴퓨터 중독에 걸린 14살 중학생이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토막 살인한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심각한 게임 중독자였다는 것이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아이들을 왜 죽였냐는 물음에 그 중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살아날 거예요, 게임인데 왜 죽어요?” 이에 대해 이동귀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도 리셋 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⁷⁶⁾

이러한 리셋 증후군의 대표증상으로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속 세상을 현실처럼 느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후에 새로운 계정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매사에 포기가 빠르다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쉽게 정리한다

76) 이동귀, 『너 이런 심리법칙 알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심리학 키워드 100』, 21세기북스, 2016, 64쪽.

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증상으로는 범법행위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그림 2] 게임 중독 일러스트 by 김토일 (사진 : 연합뉴스)

리셋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나 pc 게임에 중독된 것이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면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모방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말한다.⁷⁷⁾ 즉, 게임을 통해 모방 학습을 하게 되면서 게임 속 상황과 현실 상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상 세계에 심하게 몰입하는 바람에 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동하게 되면서 현실도 리셋이 가능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경우라는 생각이 들면 쉽게 회피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원인 이외에도 특정한 심리적 요인 때문에 리셋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면서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이 학습되기 때문이다. 인지 부조화는 자신의 신념, 믿음, 가치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신념, 믿음, 가치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의 신념, 믿음,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제일 처음 들었던 예시를 통해 인지 부조화를 설명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치고 싶다는 그리고 잘 쳐야 한다는 믿음, 신념,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행동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이나 가치를 지키려고 하기 보다는 현재의 행동에 맞게 내 믿음, 신념을 바꾸게 된다. 리셋해도 괜찮을 거라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고 그런 과정이 학습되면서 리셋 증후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리셋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아주

77) 「인생도 리셋이 가능한가요...리셋증후군」, 『YTN Science』, 2018.10.10., https://m.science.ytn.co.kr/view.php?s_mcd=0082&key=201810101616023616, 2020. 07.01.



[그림 3] 행복한 모습의 남녀 (사진 : pixabay)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성취하는 경험을 점차 쌓아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상 세계 속에서 지나치게 빠져 살아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을 더 늘려가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통해 리셋 증후군으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인의 삶을 계속 리셋하려고 하는 것보다 마인드를 리셋해보는 것이 어떨까?

[참고문헌]

이동귀, 『너 이런 심리법칙 알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심리학 키워드 100』, 21세기 북스, 2016.

「인생도 리셋이 가능한가요...리셋증후군」, 『YTN Science』, 2018.10.10., https://m.science.ytn.co.kr/view.php?s_mcd=0082&key=201810101616023616, 2020. 07.01.

(그림 출처)

안승섭, 「“내 아이 구해달라”...중국서 '인터넷 중독' 치료 캠프 성행」, 『연합뉴스』, 2019.06.27.,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7126400074>, 2020.07.01.

“reset”, 『TomFerry』, <https://www.tomferry.com/blog/relationship-reset-button/>, 2020.07.01.

“happy”, 『Pixabay』, <https://pixabay.com/ko/photos/%EB%82%A8%EC%9E%90-%EC%97%AC%EC%9E%90-%EC%9D%98%EB%A5%98-%EC%BB%A4%ED%94%8C-2425121/>, 2020.07.01.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자유전공학부 조아현

1학년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다 듣는 인문사회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주차 때 썼던 칼럼글이 이번 성과 발표회의 수상글이 됐다는 게 되게 기쁘고 신기합니다. 1학기 때 들었던 교양 중에서 제일 알차고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1주차부터는 대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각주 달기나 참고문헌 작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차부터는 매주 글쓰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어쩔 때는 수업 시간 내에 바로 빠르게 작성해야 하는 글쓰기 과제도 있었고 그 시간 내에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의 여유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원래 글쓰기를 조금 두려워했던 저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의 생각을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짚 작성해서 한 편의 글을 작성한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매 주차 글쓰기 과제를 시행하면서 성적이 함께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게 되면서 나름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언어화 하는 근육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이렇게 칼럼글로 수상한 걸 통해 글쓰기에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울림이 있고 깊이 있는 글쓰기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글쓰기 활동을 하고 조별활동을 하는 게 많은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두 활발하게 동료 피드백도 하고 글쓰기 활동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다만 매주차 글쓰기마다 성적이 매겨지는 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매기는 시험이나 활동을 따로 하고 주차별 과제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 관련 칼럼 및 맛에 대한 특별한 기억 발표

<초점화된 자유글쓰기 발표>

맛에 관한 특별한 기억: <순수했던 그 시절, 그 ‘맛’을 회상하며...>

요즘은 참 먹을 것이 많은 세상이다. 먹을 것이 많아 졌다는 것이 해외의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맛 볼 수 있는 음식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2학년 ‘꼬맹이’시절 초등학교에 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불량식품을 팔거나 떡볶이나 슬러시 따위를 팔던 구멍가게 하나만 달랑 있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 길거리 구석구석에 온갖 음식들을 파는 편의점이 자리 잡고 있고 편의점이 가기 싫으면 주변에 있는 치킨, 피자, 족발과 같은 야식부터 심지어 초밥, 뷔페 음식과 같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음식들을 터치 하나로 배달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리고 ‘편리한’ 세상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초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초등학교 근처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가본 적이 있다. 내가 갔을 때가 마침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었는지 초등학교 입구와 그 주변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려는 아이의 부모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집이나 학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나는 잠시 추억에 잠겨 나의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그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다가 문득 하교 할 때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나서 먹던 초등학교 정문 앞 구멍가게의 500원짜리 짜장 떡볶이와 슬러시의 ‘맛’이 생각나 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늘 아이들로 붐비던 가게이기에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항상 견재한 그 모습을 떠올렸던 나는 그 아이들로 붐비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가게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아 한 동안 그 가게 앞에서 멍하니 서있었다.

그 후 집에 와서 나는 그 구멍가게가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그 가게의 음식들이 맛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초등학교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겨버려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버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내리면서 이 가게가 망해버린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하긴 했지만 그 가게의 현재 존재 여부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나의 기억에 깊숙이 박혀 있는 한창 세상을 아가던 정말 순수했던 그 시절 맛보았던 500원짜리 짜장 떡볶이와 슬러시의 ‘맛’은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먹었던 어느 음식보다도 맛있고 추억이 깃든 ‘맛’으로 기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목 때문에 지금의 발전한 세상보다 옛날이 훨씬 좋거나 현재를 비판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데 나는 그저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그 ‘맛’을 회상

하는 것일 뿐 편의점에 자주 가고 배달 어플을 자주 이용하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 신입생이자 20살로서 현재를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칼럼 발표>

<'알맹이' 없는 기본소득 열풍,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2020년 현재 정치권에 붙어 닥치고 있는 기본소득 열풍, 이를 평가해보자면?

2020년 현재,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이다. 그 이유는 2020년 우리의 삶에 갑자기 붙어 닥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된 각 지자체별 재난소득과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얼어붙었던 우리나라의 소비에 잠시나마 훈풍을 불어다주는 위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백 교수의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처음 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모두가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말하다 2010년대에 이르러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2017년 대선에 이르러서야 대선후보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⁷⁸⁾

다만, 2017년 대선시기에도 진보 진영의 후보, 대표적으로 이재명, 심상정 후보 등이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반면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거나 개념 자체는 동의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집해 왔었다(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등). 이것으로 볼 때, 올해 정치권에서의 기본소득 주장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미래통합당에서도 곳곳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데서 있다.

기본소득 관련 주요 정치인들의 입장

<p>근본적 검토 필요 지속적 포용성장 위한 각종 제도 확립해야</p>  <p>김중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p>	<p>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 환영</p>  <p>이한연 더불어민주당 의원</p>
<p>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장이 필요</p>  <p>박원순 서울시장</p>	<p>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야</p>  <p>이재명 경기도지사</p>
<p>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 실시되려면 지금의 복지체계 전면 재조정해야</p>  <p>홍준표 국회의원</p>	<p>정부의 가용 복지 지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p>  <p>안철수 국민의당 대표</p>

기본소득제: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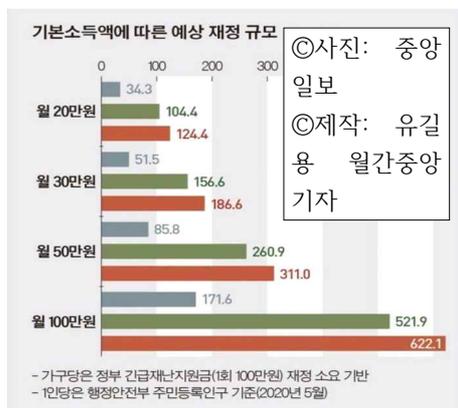
그렇다면 2020년 현재 기본소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의 주장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이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이다. 유 연구원(외 2인)의 논문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016년 성남 시장시절부터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낮은 단계의 기본소득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시장이 된 지금은 이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⁷⁹⁾ 또한, 이 지사는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여 조금씩 지급액을 늘려가야 하며 전 교수의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토지와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사용료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서 참고한 토지보유세와 데이터세(AI세), 탄소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한다.⁸⁰⁾

78) 백승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모형들」,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 221호, 2017.03. p.14
 79) 유영성, 정원호, 이관형,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 366호, 2019.04. p.15
 80) 전강수, 「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에 대한 비교 검토와 그 함의 - 재원 정당성을 중심으로 -」, 『시민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유와 진정한 실현은 '빵을 살 수 있는 '물질적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유 연구원(외 2인)의 논문에서 말하였던 기본소득의 이념인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데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⁸¹⁾ 다만, 이 지사와는 달리 김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관련 주장은 재원 마련 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의 준비 단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진다.

기본소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을 각 진영 별로 1명씩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인물들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 지 즉,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차례이다.

내용에 앞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지사와 김 비대위원장의 주장 모두 현재는 '현실성이 없다'이다. 먼저, 이 지사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지사는 국민일보의 기사에서 말하듯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토지보유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사가 주장한 적정 금액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세(로봇세-AI세)의 신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이끄는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여 성장 촉진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⁸²⁾



두 번째로, 김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주장은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 아젠다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지급 계획 등이 없는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드디어 나왔다는 것에서 주목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자 그제 서야 손가락을 살짝 올려놓는 것으로 보여 질수도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이와 같이 두 인물들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정당성을 평가하고 나서야 나는 현재 '알맹이'없는 기본소득 열풍을 비판할 수 있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 나는 이렇게 비판한다. 첫째, 현재 여러 정치인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주장들에는 '알맹이'인 재원 마련 대책이 언급되어있지 않거나 언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 중앙일보의 기사에서는 기본소득을 월 20만원 지급하였을 때 124조원, 이 지사가 제시한 적정 금액인 월 50만원을 지급하였을 때 311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최소 3분의 1, 최대 60% 이상을 기본소득 지급에 쏟아 부어야 하는데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대책이 제대로 언급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비판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⁸³⁾

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 35호, 2019.12. p.181

81) 유영성, 정원호, 이관형,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 366호, 2019.04. p.1

82) 김나래, 신재희, 「이재명 “기본소득 위한 증세는 모두에 이익, 국민 설득해야”」, 『국민일보』, 202006.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15221&code=611111111&cp=nv..>, 2020.06.29.

둘째로, 재원 마련 대책 보다는 좀 더 사소한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주장은 기본소득을 먼저 추진하였던 타 국가들과는 달리 너무 정치권에만 치중되어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기본소득 시행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친 스위스와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타 국가들과는 달리 기본소득의 직접적 수혜자이면서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의 직접적 영향자이기도 한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에서만 이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비판할 만한 점이다.

지금까지, 나는 2020년 정치권 최고의 핫 이슈인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내가 선정한 제목에 맞는 ‘알맹이’없는 기본소득 열풍에 대한 비판점을 말하기 위해 현재 기본소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 의견들의 정당성을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나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주장들에 가장 ‘알맹이’인 재원 마련 대책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것을 비판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나는 기본소득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들의 일자리가 로봇(AI)에 모두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기에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해야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여 현재의 재원 마련 대책이 빠진 기본소득 논의 대신 ‘알맹이’있는 논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기회로 정치인들이 제시한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용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를 알아보고 소통하며 정책을 제안해나가는 ‘능동적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83) 유길용, 「편의 전쟁」에 한국이 취했다…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중앙일보』, 2020.06.26.
<https://news.joins.com/article/23810869>, 2020.06.28

<참고 문헌>

국내 논저

1. 백승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모형들」,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 221호, 2017.03.
2. 유영성, 정원호, 이관형,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 366호, 2019.04.
3. 전강수, 「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에 대한 비교 검토와 그 함의 - 재원 정당성을 중심으로 -」,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 35호, 2019.12.

기타 자료

1. 김나래, 신재희, 「이재명 “기본소득 위한 증세는 모두에 이익, 국민 설득해야”」, 『국민일보』, 2020.06.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15221&code=611111111&cp=nv.>, 2020.06.29.
2. 유길용, 「편의 전쟁’에 한국이 취했다…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중앙일보』, 2020.06.26. <https://news.joins.com/article/23810869>, 2020.06.28.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유럽어문학과 최용하

안녕하세요.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에서 동상으로 입상한 202033355 유럽어문학과 최용하라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문사회글쓰기에 대한 수업소개와 과제 진행 과정,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말해보려 합니다. 제가 수강한 인문사회글쓰기는 가천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입니다. 각 교수님마다 커리큘럼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수강한 이정아 교수님의 인문사회글쓰기의 강의에서는 ‘대학’에서 필요한 글쓰기에 대해 자유글쓰기, 정형화된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논평문, 칼럼 등 여러 가지 목적과 형식의 글쓰기에 대해 직접 여러 편의 글을 완성해보고 대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용구(각주, 미주)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배우는 한편 기본적인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가볍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수강한 이정아 교수님의 강의를 기준으로 하면 과제는 앞서 말했듯이 수업에서 배웠던 글의 형식이나 주제에 맞추어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과제가 대다수였고 이외에는 인용구나 인용 방법, 한글 맞춤법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예제를 교수님이 준비해주시면 그것을 풀고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문사회글쓰기 강좌가 대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글쓰기를 배운다는 점에서 좋았고 특히,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한 글쓰기 방법은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오직 ‘대학’이라는 고등 교육기관에 와야 배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원래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제 효과를 배울 수 있는 강의이지만 2020년의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대면 강의에서 보다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신 교수님, 적극적으로 교수님과 의사소통하며 강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저를 포함한 학우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발표 작품과 더불어 이 수상소감이 후에 인문사회글쓰기 과목을 수강할 가천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화 횟수와 상호 간의 공감 수준이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

1. 서론
 2. 본론
 - 2.1 이론적 배경
 - 1) 의사소통
 - 2) 자기표현능력, 자기효능감
 - 3) 공감 능력
 - 2.2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
 - 1) 대화 주제
 - 2) 공감 수준
 - 3) 중간다리의 역할
 - 4) 공감 능력이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대화 횟수와 상호 간의 공감 수준이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언어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란 독립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상대되는 대상을 필요로 하므로 언어, 비언어 행위 등의 의사소통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모든 사람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구성을 만들며 이는 가족에서부터 사회 집단으로까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사회, 문화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발달에는 의사소통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인과의 의사표현과 공감 능력에 있어서 대상에 따라 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인 중 대화의 횟수와 공감 수준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가족 구성원으로 하며 2020.05.20.~2020.05.22.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지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괄한다.⁸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특성이나 민족적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구자에 따라서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

Barnes와 Osion(1982)은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였다. 첫째,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둘째,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은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⁸⁵⁾ 또한 Birch와 Ladd(1977)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수용-거부영역은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 정도를, 자율-통제영역은 자녀를 자율적 태도로 대하는 정도를, 과잉-비과잉 영역은 자녀에 대한 관대함 정도를 나타내는 태도이다.⁸⁶⁾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다양하다. 본 과제에서는 부모-자녀, 또한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아닌지에 따라 자녀의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효능감, 공감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barnes와 Osion이 대별한 의사소통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자기표현능력, 자기효능감

자기표현능력은 자신의 감정 또는 생각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표현 능력은 상대방과의 더욱 생산적 대인관계를 지속시켜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인지적, 감정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자기효능감은 모호하고 예측할 수

84) 김희수, 『신교육심리학』, 서울: 한울출판사, 2003

85) 김희수, 홍성훈, 윤은중,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제 16집 2호, 2005, 37-65쪽.

86) 김희수,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행동과 애착 안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2집 제2호, 2004, 501-518쪽.

없는 상황을 다루는 데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따르는 개인의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자신감의 수준이다.

3) 공감 능력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알아채고, 누군가가 받는 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⁸⁷⁾ 이 모든 행위의 이해방식은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정서적 공감은 감정이 통하는 공감을 말한다. 주로 가족이 되며 어떤 사념 없이 느낌과 감정으로 통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은 학교나 회사생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생긴 공감을 말한다.

2.2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

1) <표1> 의사소통 분석표

구성원	대화 횟수 (주간)	의사소통 유형	주요 주제	자기표현능력	공감 수준	특이사항
아빠	15~20회	역기능적 의사소통	경제, 정치, 진로, 성적 등	낮음	낮음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대화를 종종 피하려 한다. 소통이 아빠 위주로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
엄마	150~180회	개방적 의사소통	모든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함.	높음	높음	사소한 것 모두를 공유하며 나와 의 공감 수준이 높다.
여동생	90~100회	개방적 의사소통	모든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함.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엄마와 마찬가지로 공감 수준이 높으며 서로의 공감 수준이 높다. 실제 대화보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화를 더 많이 한다.

<표1>은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 횟수와 사용언어, 주요 주제 및 특이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이다. 주간 대화 횟수를 보면 엄마와의 대화가 가장 잦았으며, 다음으로 동생, 마지막으로 아빠와의 대화 횟수가 가장 적었다. 그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패턴을 분석해보았다.

2) 대화 주제

첫째로, 대화의 주제를 두고 보았을 때, 엄마와 동생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공유를

87) Kanov, Maililis, worline, Dutton, Frost & Lilius, 2004.

하며, 서로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아빠와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여태껏 지내온 가족생활 중에서 아빠와 같이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통의 시작은 항상 아빠가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진행이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로 인한 대화의 주제는 아빠가 정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1주간의 현상이 아니라,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엄마와 동생과의 대화 주제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 하나를 전부 이야기한다. 오늘 날씨부터 해서 그 순간의 기분,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갑자기 생각난 모든 것, 대화의 주가 되는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서로가 주제를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 누구나가 주제자가 되었다. 상대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에 따라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친밀감이 대화 횟수와 사용언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3) 공감 수준

공감 수준의 순위는 동생 - 엄마 - 아빠 이다. 대화 횟수는 엄마와의 대화가 가장 많았지만, 그럼에도 동생과의 공감 수준이 더욱 높았으며 이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SNS의 활성화로 동생과는 실제 대화를 통한 소통보다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소통을 하므로 모든 순간을 함께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단순히 공감 능력은 가족들과의 대화빈도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를 생각해보았다. 왜냐하면, 아빠와의 공감 수준은 공감이기보다 수용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4) 중간다리의 역할

가정의 중심이 되는 아빠와의 공감 능력이 낮음에도 긍정적인 가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가족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엄마의 역할이 크게 미쳤다. Barnes와 Osion(1982)의 연구를 대입해 보았을 때, 대체로 엄마와 동생과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아빠는 간접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빠가 항상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엄마를 통해 그 의사를 전하고는 한다. 이는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자칫 충돌을 서로 피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그 때문에 공감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밝힐 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중간다리를 요청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나도 아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엄마를 통해 부탁하기도 한다.

5) 공감 능력이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이 아빠일 때, 자기표현능력이 낮아지며 엄마와 동생일 때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감 능력의 차이에서 온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내적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외적 요인으로는 대화의 횟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상호 간의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대상에 대한 자기표현능력의 수준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결론

대화 횟수와 상호 간의 공감 수준이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다. 대화 횟수는 상호 간에 공감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대화 주제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 횟수가 많을수록 더욱 다양한 수준의 대화 주제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공감 수준에 있어서도 대화의 횟수는 영향을 미쳤다. 대화의 횟수가 많을수록 상호 간의 공감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대화의 횟수가 낮음은, 공감보다 수용에 더 가깝게 되기도 하였다. 이는 대화 횟수가 적을수록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임으로 대화의 주제자에 의해 수동적인 의사소통, 즉 일방적인 의사를 통보하게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상호 간 공감 능력의 수준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며, 상호 간 공감 수준에 따라 이를 이어줄 중간다리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았을 때, 상호 간 대화 횟수와 공감 능력의 수준에 따라 자기표현능력이 높은 부분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기표현능력을 비롯해 자기효능감 즉, 자신감을 높여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사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한정된 대상을 상대로 조사, 분석한 내용이기때문에 다소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모든 가족에 위와 같은 결과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대화 횟수와 공감 수준 그리고 그것이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었다. 또한, Barnes와 Osion의 방법을 대입해 보았을 때, 개방적 의사소통이 역기능적 의사소통보다 상호 간 공감 능력을 높여주었으며, 이에 공감 능력의 수준이 부족할 때, 중간다리가 생겨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즉, 결과적으로 대화 횟수의 증가는 상호 간 공감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희수, 『신교육심리학』, 서울: 한울출판사, 2003
- 김희수,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행동과 애착 안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2집 제2호, 2004, 501-518쪽.
- 김희수, 홍성훈, 윤은종,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제16집 제2호, 2005, 37-65쪽.
- 김희수, 문승태,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4집 제2호, 2011, 183-195쪽.
- Kanov, Maililis, worline, Dutton, Frost & Lilius, 2004.

2020년 <글쓰기 교과 성과 발표회> 수상소감

동상 운동재활복지학과 허윤진

의료보건 글쓰기 수업의 과제를 진행하며..

언어 감수성과 공감 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내주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가족이었다. 가족과의 의사 표현과 공감에 있어서 그 대상에 따라 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생각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필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엄마, 아빠, 동생이 있다. 필자의 일상 중에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에게 대하는 표현 수준, 의지하는 정도, 공감 수준은 모두 다르다. 이 중 누가 가장 필자와 공감 능력이 잘 조화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영향은 필자의 언어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필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조사 기간을 2020.05.15. - 2020. 05.22.로 두어 과제 마감일 전까지 조사하였다. 일상생활 중 나타나는 본인과 대상의 언어표현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류하며 자체적으로 진단표를 만들었다. 가족 중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했는지, 가족 중 누구와 오랜 시간 대화하였는지, 가족 구성원 간의 언어선택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것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한 주간 기록하여 진단하기 위해서 선택언어, 대화 횟수, 대화시간, 공감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표를 제작하였고 진단내용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분류된 현상에 대해 분석하며 과제를 작성하였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필자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면 서로 불편한 구석이 많았다. 과제를 작성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필자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나가시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극히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화 횟수가 현저히 낮다 보니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는 결론이 나왔다. 과제를 마치고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기하게도 대화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버지의 일방적인 조언과 걱정 어린 말씀의 빈도가 줄고 필자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필자의 자기표현 능력이 높아질수록 필자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공감 수준은 과제를 작성하기 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의료보건 글쓰기 수업을 통하여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필자의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언어 감수성과 공감 능력에 관한 보고서 작성 과제는 필자의 가족관계가 호전되는 전환점이 되었다.